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7호 【루계 제25170호】 주체105(2016)년 1월 27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상원의 로동계급처럼 견인불발의 의지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1월 인민경제계획 앞당겨 수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를 안고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김책수산사업소, 함흥건재공장, 쌍룡광산에서 1월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무조건 결사관철할 일념안고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높이 세운 1월 석탄생산계획을 지난 24일까지 빛나게 완수하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만장약된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수백㎥의 동발과 수백kW능력의 발동발전기를 비롯하여 생산에 필요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석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은 탄광들에 내려가 전후 빈터우에서 천리마를 타고 내달린 전세대들처럼 높은 석탄생산성과로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였다.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타번지는 막장들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면서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갔다.

련합기업소적인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고원탄광의 탄부들이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기세차게 내달렸다.

탄광당조직의 지도밑에 한용철동무를 비롯한 탄광일군들은 자력자강만이 살길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올해 첫 전투부터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수백kW능력의 발동발전기를 자체로 해결하여 전력이 부족한 속에서도 굴진을 중단없이 내밀수 있게 하는 한편 갱구역별전차가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단위시간에 캐낸 석탄이 신속히 운반되도록 하였다. 또한 수만m의 알루미니움선을 구입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고 운반능력을 2배로 높이는 등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탄광에서는 지난 22일까지 월 석탄생산계획이 완수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석탄증산의 불길은 운곡탄광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탄광의 당, 행정일군들은 년초부터 갱들을 맡고 들어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탄부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특히 신국철동무가 맡고 내려간 남산갱의 탄부들은 소대별사회주의경쟁의 열풍속에 제기되는 문제를 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으로 해결하면서 배임 석탄생산계획을 180%이상 수행하여 지난 17일까지 월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내였다.

수동탄광 일군들은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처럼 모든 탄부들이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모든 갱들에서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이 전투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저열탄중대와 김진청년돌격대가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렸다. 강남철, 채명국동무를 비롯한 저열탄중대원들은 모든것이 불리한 속에서도 월생산계획을 121.7%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김진청년돌격대원들도 어렵고 힘든 막장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였다.

경둔탄광과 둔전탄광 일군들과 리수복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탄부들도 힘찬 돌격전을 벌려 월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냈다.

탄광기계공장의 로동계급과 가두녀맹원들은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자재와 부속품, 동발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석탄생산에 이바지하였다.

지금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때를 과시하며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5월까지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무조건 완수할 신심드높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리 영 민

김책수산사업소에서

김책수산사업소에서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물고기잡이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년초부터 힘찬 어로전을 벌려 올해 첫달 물고기잡이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수산사업소에서는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킬 높은 목표를 내걸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사업소일군들은 어로공들과 함께 배에 올라 어구수리도 하고 물고기잡이도 같이하면서 올해 물고기잡이전투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조직에서는 올해를 자랑찬 물고기잡이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선전선동사업과 혁신자축하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ㅈ-만-19호의 어로공들은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매일 2t이상의 물고기를 잡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어구준비를 빈틈없이 갖춘 ㅈ-자-111호의 어로공들도 중심어장을 신속히 타고앉아 물고기잡이전투를 벌려 많은 량의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1선단과 2선단의 모든 어로공들이 과학적이며 집중적인 어로전을 들이대여 3일동안에 15t의 물고기를 잡는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켰다.

가공직장의 종업원들은 매 공정들에서 위생학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어로공들이 애써 잡은 물고기를 제때에 가공하였다. 가족들도 탈려나와 이들의 로력적투쟁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1월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한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그 기세로 련속어로전, 집중어로전을 들이대며 물고기잡이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 은 남

함흥건재공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함흥건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에 완전성공한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고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달려온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 15일 올해 첫달계획을 100.2%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이들이 지난해에 비하여 1.5배로 높아진 1월계획을 보름동안에 수행한것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애국충정의 마음안고 새해 첫 전투에 달라붙었다.

계획수행기간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일판을 통이 크게 전개하여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일게 하였다. 리상철, 강창구, 황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기본열쇠로 틀어쥐고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원료와 연료보장을 앞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새해전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하여 공장일군들은 석회석광산과 탄광에 나가 원료, 연료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륜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집중수송전투를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석달이상분의 원료, 연료를 넉넉히 마련해놓고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2건재작업반원들은 소성로와 분쇄기, 파쇄기를 비롯한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전례없는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였다. 운수작업반의 운전사들은 수송이자 곧 생산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원료와 연료수송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보수작업반, 공무작업반의 로동자들도 공장의 월계획수행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하였다.

특파기자 박 동 석

쌍룡광산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쌍룡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새해 첫 전투를 힘있게 벌려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광산에서는 26일현재 월 비료생산계획을 110%로 넘쳐 수행하는 기록을 창조하였다.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비료생산성과로 맞이할 일념안고 광산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비상한 전투목표를 내세웠다.

광산당조직에서는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는 한편 현장조건에 맞게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그대로 증산성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일군들이 화선의 기관차마냥 대오의 앞장에서 만짐을 지고 생산자대중을 위훈창조에로 이끌었다. 전투작전도 생산지휘도 현장에서 하고 로동자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간 일군들의 투쟁기풍은 생산자대중을 기적창조에로 고무추동한 주되는 요인이였다.

비료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한 로천갱 광부들이 흰눈덮인 마천령의 채굴장마다에서 박토처리를 선행하면서 광물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삭도직장의 로동계급은 운반이자 곧 생산이라는 자각을 안고 설비관리에 큰 힘을 넣어 광석운반을 책임적으로 하였다.

선광직장, 린비료직장에서는 여러가지 선진과학기술과 합리적인 방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공무직장을 비롯한 보장단위 로동계급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채광설비와 전동기보수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고있다.

전 혁 철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일념안고 포장용기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단천마그네샤공장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 60%계선 돌파

121호림업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121호림업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로동계급은 통나무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의 60%계선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은 작전과 지휘, 사업총화를 산판에서 진행하고 걸린 고리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설비와 부속품, 연유와 후방물자 등 모든 생산잠재력을 통나무생산에 집중하고있다.

년초부터 좋은 림지를 타고앉아 드센 돌격전을 들이대고있는 자서림산사업소의 통나무생산자들이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그에 맞게 사업소의 자동차운전사들은 합리적인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경사가 급한 운재구간에서 통나무들을 안전하게 실어나를수 있게 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상창림산사업소의 림철기관사들은 겨울철추위가 계속되는 속에서 불리한 운행조건을 극복할수 있도록 기술적대책을 세움으로써 림철기관차가 견인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있다.

부전림산사업소의 나무베기공들과 밀대공, 아지따기공들은 그날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끝낼 높은 목표를 내걸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 날마다 통나무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로 충만된 통나무생산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철길관리를 맡은 로동자들은 철길상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며 불비한 곳들을 미리 찾아 없앰으로써 림철기관차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2월 중순까지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냄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열의에 넘쳐 투쟁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로 들끓는다

‖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설비조립전투 시작, 조립성과 확대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서 청년돌격대원들과 전체 건설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새로운 전투소식이 전해지고있다.

발전소건설이 비상히 높은 속도로 추진되는데 맞게 이미 수송하여온 설비조립전투가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됨으로써 완공의 그날에 대한 신심드높이 청년돌격대원들이 혁신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의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현장련합지휘부일군들은 무한한 신심과 용기에 넘쳐 3호발전소건설을 당 제7차대회전으로 무조건 끝내기 위한 립체적이며 진공적인 작전을 펼치였다.

지휘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송하여온 흡출관, 원추관과 압력관로 등을 도착하는 차제로 조립하여 설치함으로써 공사기일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대상설비조립으로 하여 발전기실건축공사가 지연될수 있다는것을 고려하여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조직사업도 미리 안받침되도록 하였다. 지난 시기처럼 대상설비가 조립되는데 따라 발전기실건축공사를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부재를 미리 준비해놓았다가 설비조립이 끝나는 즉시에 공사를 빨리 결속하기 위한 기발한 방안이 나온것을 비롯하여 공사기일을 최대한 앞당길수 있는 공법과 기술혁신안들이 대담하게 창안, 도입되였다.

대상설비조립을 맡은 각 단위 로동자들이 청년돌격대원들의 비상한 공격속도에 발맞추어 설비조립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된 설비조립전투는 불리한 기후조건으로 하여 처음부터 큰 난관을 동반하였다. 령하 40℃를 가까이하는 혹심한 추위와 살을 에일듯이 불어치는 맵짠 바람, 하늘을 메울듯이 쏟아지는 폭설로 하여 설비조립전투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완강한 투지와 인내력을 최대로 발휘할것을 요구하였다.

수력설비조립사업소의 로동자들이 흡출관과 원추관조립공사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례없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들은 3호발전소를 당 제7차대회전으로 무조건 건설하기 위하여 총공격전을 벌리는 백두청춘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에 발맞추어 불꽃튀는 전투를 벌림으로써 한주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조립공사를 결속하는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제관조립직장의 로동자들이 압력관로조립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난 1월초부터 수송되기 시작한 압력관로를 도착하는 차제로 제때에 조립함으로써 건설기일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현장련합지휘부의 작전에 따라 로동자들은 지체없이 설비조립전투에 들어갔다.

강추위로 하여 설비들의 리용에서 큰 지장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체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과감한 투쟁을 전개해나갔다. 작업장주변에 열보장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리용하여 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작업 전과정에 철저히 구현하여 공사에서 높은 질적수준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전투를 시작한지 불과 며칠사이에 수십m에 달하는 압력관로가 조립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로동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련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조립성과를 부단히 확대해나가고있다.

발전기실구조물공사에 동원된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자기들의 공사실적에 설비조립의 많은 몫이 달려있다는것을 자각하고 맡은 대상건설에 애국충정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들은 청년돌격대원들과의 협동작전으로 발전설비들을 설치할 구조물공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속하도록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한편 이미 조립된 원추관과 흡출관을 비롯한 설비들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선행시킴으로써 설비조립전투시작부터 성과를 확대해가고있다.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는 한편 본격적인 대상공사가 진행되는데 맞게 련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혁명의 최전성기로 맞이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과감한 투쟁을 벌려나가는 청년돌격대원들과 전체 건설자들의 애국충정의 마음으로 하여 지금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는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의 기상이 힘차게 나래치고있다.

리 호 성

농약의 국산화실현을 위한 투쟁 활발

각지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떨쳐나선 과수부문에서 농약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다류화바리움을 비롯한 10여가지 농약을 자체로 만들 대담한 목표밑에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에 필요한 농약은 자체로 생산하여 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과수부문의 일군들은 병해충구제를 과일증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보고 농약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수입에 의존하던 농약들을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연구개발한 성과에 기초하여 일군들은 그 생산을 늘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또한 적은 농약으로 그 효과성을 높이게 하는 첨가제를 다량생산하여 과수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소식에 고무된 각지 과수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은률, 삼천, 신천과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는 당의 높은 뜻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이 사업에 앞장서고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자기 지방에 흔한 중정석을 리용하여 다류화바리움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원가를 80% 줄이면서도 살균효과가 큰 농약의 우월성을 확증한 이들은 로보수와 설비정비를 끝낸데 이어 원료를 대대적으로 실어들이면서 생산을 적극 내밀고있다. 그리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3배의 농약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함흥, 단천과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실천으로 받들어갈 드높은 열의안고 화학공장들에서 나오는 페설물로 석회류황합제를 생산하기 위한 높은 목표밑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들은 페설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놓은데 이어 석회석운반에 힘을 넣고있다. 농약효력지속기간이 긴 이 농약을 자체로 만들게 됨으로써 녹병, 떡가루병을 막고 진드기류 등 과일나무에 해를 주는 여러가지 병해충을 원만히 구제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지난해에 여러가지 농약을 절약할수 있는 첨가제를 연구개발한 숙천청년과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기세가 대단하다. 이들은 종전의 농약보다 지속기간이 길고 각종 농약을 50%정도 절약할수 있는 이 첨가제를 대대적으로 만들기 위해 생산능력을 더욱 확장하고있다.

식물성농약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평양, 사리원, 온천과수농장을 비롯한 많은 과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또다시 과일대풍을 안아올 불같은 결의를 안고 분발해나섰다. 무공해과일생산에서 식물성농약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이들은 침투성이 좋고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농약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방도를 원료확보에서 찾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룡전, 황주과수농장, 덕성사과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생산기지를 잘 꾸려놓고 원가를 50% 절약하면서도 여러가지 병해충구제에 효과가 높은 버겨진류액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과수부문 일군들은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원가를 줄이고 효과성이 높은 나노농약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지금 각지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룩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보다 더 많은 농약을 생산하여 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기세드높이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정 성 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뜻깊은 올해를 빛내일 열의안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양말공장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안고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자

천만군민을 자강력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우시여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이라는 민족사적대사변으로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새해의 큰걸음을 힘차게 내디딘 내 조국땅에 새로운 투쟁과 전진의 기상이 차넘친다. 우리 인민이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길에 그리도 힘차게 나설수 있은 막강한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자강력! 바로 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반만년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체조선의 불패성의 밑바탕에는 절세의 위인들의 손길아래 억척으로 다져온 자강력이 놓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우리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이다!

이 철의 진리가 온 나라를 쇠몰마냥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의 강위력한 보검인 수소탄시험의 성공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강력의 새로운 높이를 보았으며 경제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자강력,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다.

얼마전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공화국이 수소탄보유국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보니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하시면서 핵개발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두고 그토록 대견해하시고 기뻐하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동지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일찌기 항일의 불길속에서 연길폭탄정신이 나래치게 하시고 해방후 평천벌의 혁사적인 총성으로 자립적국방공업의 새 력사를 펼치시며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원료와 자원에 의거한 경제와 국방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뜨거운 축하의 인사에 소중히 담겨있었다. 고난과 시련의 나날 나라의 귀중한 자금을 자기 힘을 키우는 국력강화에 돌리시며 김정일애국주의의 숭고한 귀감으로 우리 조국을 강대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승리의 보고와 그리움의 정이 그이의 따뜻한 축복에 무겁게 실려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품을 들이시고 정과 열을 기울이시여 창조와 건설의 능수들로 억세게 키워주신 영웅적 우리 군인을 자강력의 강자들로 더욱 훌륭히 내세우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울이신 끊임없는 심혈의 세계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지금도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천만의 심장마다에 자력자강의 정신이 맥박치는 백절불굴의 혁명신념을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울창창한 천리수해에서 메아리쳐 울려오는듯싶다. 온 나라 어머니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있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100% 국산화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식료품을 먹이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어려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신화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하시며 격정에 넘쳐계시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연제우에 서면 불가능을 모르는 우리 청년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의 위력과 청년강국의 거대한 잠재력에 대한 끝없는 희열로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게 된다.

사람들은 지금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새로 만든 경비행기를 몸소 타시고 시험비행을 하신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있을것이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경비행기들이 조국의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여러 기종의 민간용경비행기들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경비행기에로 다가가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비행기인데 자신께서 타보아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좋아할것이며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경비행기에 오르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물론 경비행기의 시험비행을 관찰하던 모든 사람들이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세상에는 위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시험비행까지 한 령도자가 언제 있었던가.

시험비행을 마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로동계급이 만든 경비행기를 타보았는데 성능이 대단히 높다고, 잘 만들었다고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축축히 젖어있던 일군들의 눈굽은 또다시 붉어졌다.

친히 경비행기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견본도 보내주시며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면서 그토록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의 세계속에 마련된 첫 경비행기가 아니였던가.

그이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크나큰 믿음속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제힘으로 경비행기를 만든 자강력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었다.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짝차넘치는 우리의 경비행기가 크나큰 영광을 안고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비행운을 새기는 모습은 그대로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자강력의 강국으로 치솟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모습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우리 인민은 이렇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자기의 힘을 억세게 키우며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강력으로 반만년민족사의 특대사변을 안아온 강의한 인민으로 성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은 승리와 영광의 해인 2016년의 장엄한 서곡으로 울린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삼고 올해를 승리자의 해로 이끌어 강성국가건설의 대서사시를 써나가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주인공들인 우리 인민에게 더 큰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력사의 기적은 위대한 령도자가 안아오는것이며 한 민족의 거대한 정신력, 무한대한 자강력의 폭발은 수령의 령도력과 의지에 의하여 일어나는것이다.

자강력의 제일강자!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슬하에서 자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오늘의 참모습이다.

길 출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강의한 정신력이 있으며 무진막강한 자강력이 있는 한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 하늘같은 믿음과 은덕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승리자의 해로 찬란히 빛내이며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백두밀림에 뿌리를 둔 고귀한 전통

수소폭탄의 힘보다 더 큰 힘

유격대창건을 앞두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군사훈련을 하고있던 어느날 무기청소를 하던 두 대원이 격침을 부러뜨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날까지 격침을 교체오라는 과업을 주시였다.

두 대원은 놀라와하며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 아닌가고 난감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쉽게 할수 있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것이 혁명이라면야 무엇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혁명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부르겠소, 보통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위업을 해제끼는 여기에 혁명의 참뜻이 있고 혁명가의 보람이 있는것이 아니겠소라고 하시면서 방법은 동무들끼리 찾아보라고 하시였다.

두 대원은 철사를 얻어 줄칼로 갈기도 하고 오랜 대장쟁이를 찾아가 기술을 배우기도 하면서 끝끝내 다음날까지 완전무결한 격침을 만들어내고야말았다.

그들의 경험은 다른 대원들에게 자기 힘을 믿고 그 힘을 발동하면 누구든지 놀라운 일을 해낼수 있다는 교훈을 깊이 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격침 한개란 사실 보잘것없는것이다, 그것을 수리하는 시간이면 새 보총 10자루도 능히 로획해올수 있다, 하지만 그 격침 한개를 수리했을 때에 얻게 되는 교훈은 수소폭탄 한개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산생시키고 확산시킨다라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유격구의 병기창

세상에 알려진 마촌병기창 또는 소왕청병기창은 소박한 철공소였다.

이 철공소의 초기수준은 조직에서 파견된 한두명의 로력이 화독에 숯불을 피워놓고 풀무를 당기면서 창이나 칼과 같은 소소한 무기를 벼려내는 정도였다. 마촌작전직후에는 인원이 7~8명으로 되였다.

이러한 병기창이 생겨나게 된것은 간도의 일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수류탄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했다가 끝을 보지 못한 일이 있은 후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교훈으로부터 자력갱생을 해야 하겠다고 결심하시고 병기창 사업을 특별히 중시하시며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시였던것이다.

도처에 마촌병기창과 같은 철공소들이 꾸려지고 야장간들이 병기창으로 전환되였으며 새로운 무기수리기지들이 창설되였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약도 자체로 만들것을 결심하시고 많은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시며 그 원료까지도 얻어내시였다. 화약이 생기게 되면서부터는 곳곳의 병기창들에서 나무포까지도 만들어냈다.

항일혁명선렬들이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고이 안고온 이 자력갱생의 불씨는 해방후 온 나라 인민의 가슴에 옮겨져 새 조선건설의 봉화로, 전설의 천리마를 날린 원동력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을 자강력의 강자로 키운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본사기자

지하전동차개발자들에게 안겨주신 믿음

새해의 첫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첫 지하전동차를 타본 사람들의 기쁨과 랑만은 그 얼마나 컸던가.

미남자처럼 잘 생긴 새 지하전동차에 오른 사람들은 저저마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차칸의 내부를 둘러보며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리용하면서 사람들은 주체적력량과 과학기술에 의거하면 무엇이든 다 만들수 있다는 신심으로 가슴벅차오름을 금치 못하며 지하전동차개발자들처럼 투쟁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현대과학기술의 위력에 의거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고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이 진행되는 개선역에 나오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이 소중히 안겨온다.

뜻깊은 그날 당에 무한히 충직하고 슬기로운 우리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하전동차의 성과적인 시운전을 통하여 수입병이라는 말자체를 없애야 한다는것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확증해주었다고,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제일 큰 힘을 안겨주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

정녕 우리의 미더운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지하전동차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크나큰 믿음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지난해 7월 어느날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업소에서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기업소자체의 힘으로 우리 식의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생산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불타는 심장마다에 굳건히 간직하였기에 기업소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훌륭히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시며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철리를 천백마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준 이곳 로동계급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친히 감사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뿐만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구상을 빛나게 관철한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을 자력자강의 선구자들로 값높이 내세워주시고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하전동차의 시운전과정을 자세히 료해하시며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와 련관부문에서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세계적수준의 지하전동차를 계렬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 높이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자!

첫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던 그때처럼 사대와 보수를 불사르며 자력자강의 창조물을 보란듯이 내놓은 우리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붉은기정신을 더 높이 떨쳐갈 열의밀에 값높은 위훈의 자욱을 자랑차게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강 철 남

자립적국방공업발전의 길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평천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뉴 델 리

인디아공화국 대통령

프라나브 무케르지각하

나는 인디아공화국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계속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할것과 나라의 진보와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1월 26일 평 양

캔 베 라

오스트랄리아련방 총독

피터 코스그로브각하

나는 오스트랄리아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게 좋게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1월 26일 평 양

리 스 봉

뽀르뚜갈공화국 대통령당선자

마르쎌루 레벨루 데 쏘우자각하

나는 당신이 뽀르뚜갈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데 대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1월 26일 평 양

자강력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무기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올해의 장엄한 진군의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낀 그 기세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간직된 진리가 있다. 그것은 자강의 길만이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자면 자기의 힘이 강해야 한다.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운명과 존엄을 결정하는 요인은 자강력이다.

자강력은 자기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이다. 자강력이 있어야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심을 없애고 자기 힘으로 발전할수 있다. 자기의 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천리도 지척이지만 남의 힘을 믿고 바라보면 지척도 아득한 만리로 된다. 우리가 최악의 시련과 난관을 파감히 뚫고 세기를 주름잡으며 비약할수 있은 근본비결은 자강력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투쟁해온데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긍지높이 자부하는 자강력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신 주체적힘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간고한 조건에서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강도 일제를 때려부셨으며 빈터우에서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떠벌이던 미제의 정수리에 철추를 내리며 복구건설을 단 몇해사이에 끝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할수 있은것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자강력의 철리를 신념의 기둥으로 억세게 세워준 당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시대와 력사가 전진하는데 따라 혁명투쟁의 조건과 환경은 달라지고 세대는 바뀌여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신 자력자강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당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자강력은 우리 식, 우리의것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여나가게 하는 백승의 보검이다.

우리 식은 곧 주체식이며 우리의것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한 재부이다. 남의 덕으로가 아니라 자기 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자기의 힘을 천백배로 강화해나가는것이 바로 자강력이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은 바란다고 하여 지켜지거나 그 누가 가져다주는 선사품도 아니다. 자강력이 없으면 민족적자존심도 떨칠수 없고 종당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지켜낼수 없다. 남의 도움으로는 고난을 일시 피할수 있어도 영원한 행복을 꽃피울수 없으며 치욕과 망국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것이 력사가 남긴 교훈이다.

자강력에 최대의 애국이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은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전대미문의 대결전이였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로 비대해지고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와의 정치군사적대결에서의 련전련승은 위대한 당의 령도와 자강력의 기치아래 다지고다져온 불패의 군력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립질식시키려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우리는 자기의 힘을 더욱 굳게 믿고 나라의 국력을 천백배로 강화해왔다. 이날에 우리 조국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수소탄까지 가진 핵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되였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다. 지금 이 시각도 적들과 직접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있는 모든 곳에서 제국주의와의 보이지 않는 대결과 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우리가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고 해도,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고 해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연길폭탄의 력사와 천리마시대의 서사시를 배우며 자라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떨쳐나선 사람들이 가는 길은 자력자강의 길이지만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는 길은 사대주의, 수입의존의 길이다. 우리는 자강력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자기의 힘을 더욱더 강화하여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갈것이다.

자강력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이룩해나가게 하는 추동력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가 강국의 징표로 될수는 없다. 과학기술이 앞서면 강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약자로, 노예로 굴러떨어지고마는것이 현실이다.

자강력은 필연적으로 과학기술중시를 요구한다. 현대적과학기술이 안받침되여야 자강력을 더 빨리, 더 강하게 키울수 있으며 그에 의거하여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며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그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더 많은 원료와 연료, 설비와 자재를 요구하고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것도 많고 없는것도 적지 않지만 그것을 남에게 의존하여 풀어나갈수는 없다. 지난해에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애국적인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들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믿고 달라붙어 우리의 힘과 기술로 지하전동차를 성과적으로 개발하였고 금속공업의 주체화에서 큰걸음을 내짚었으며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이것은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투쟁해나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으며 자기의 힘을 더 큰 힘으로 강화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의 첫날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과학기술전당준공식은 오늘 우리 당이 과학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도 결국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위의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온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과학기술로 자강력을 다져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사상에는 과학기술발전을 강성국가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사로, 나라의 전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과학기술로 자강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려는 당의 의도가 깃들어있다.

자강력에 강성국가건설의 승리가 있고 후손만대의 미래가 있다.

조 학 철

당원들은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자

누구의 심장에 먼저 불을 지폈는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을 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을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로,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 한몸을 내대는 열혈투사들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진군의 포성이 강산을 진감하는 격동적인 시대가 당원들을 부르고있다.

당원들의 심장이 먼저 끓어야 온 나라에 전례없는 기적창조의 폭풍을 몰아올수 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당위원회가 바로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해나감으로써 올해 첫 진군길에서부터 큼직한 자욱을 새기고있다. 그러면 단위의 당사업을 통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화선에 나가 어깨를 결고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당원들과의 사업에 앞서 중시한 문제가 있다. 당일군들의 위치와 활동방식을 옳게 규정한것이다.

당 제7차대회소집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발표된 후 열린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책임비서 박창범동무가 중요하게 강조한것이 있다.

우리 기업소는 당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있다. 전력증산의 예비는 바로 당원들의 심장속에 있다. 문제는 우리 당일군들이 화선에 나가 당원들과 어깨를 결고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것이다.

이렇게 되여 이 문제가 중요한 결정으로 채택되였다.

이에 따라 당위원회일군들은 학습조직, 개별담화, 당원협의회조직 등 당생활지도의 모든 제기와 공정을 화선에 집중시키는 원칙에서 짜고듦으로써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최대로 높이도록 하였다.

선전선동부에서는 당원들이 당기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수, 돌격대가 될데 대한 정치사업자료를 기동적으로 만들어 모든 당일군들과 당초급일군들이 화선식정치사업을 맹렬하게 들이대게 하였다. 기업소구내에 30여점의 이동식속보판을 만들어 당원들의 궁정적소행을 제때에 소개선전하는데도 품을 들였다.

당위원회는 특히 일군들이 화선에 나가 걸린 문제를 함께 풀면서 당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것을 중시하였다.

내열세멘트생산공정을 새로 꾸리던 과정을 실례들어보자.

수입에 의존하던 내열세멘트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는것은 당결정에 쪼아박은 전투목표였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었다. 당위원회 비서 장성철동무는 즉시 자력갱생직장현장에서 당원협의회를 열고 당원들의 심장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부속품가공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어깨를 들이대고 풀어나갔으며 전투원들에 대한 후방사업도 통이 크게 진행하였다. 당일군들의 이런 헌신적인 투쟁기풍은 위력한 정치사업이 되여 당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켰다. 당원들이 앞장서고 대중이 따라섰다. 그리하여 생산공정이 짧은 기간에 꾸려지고 여기에서 생산된 내열세멘트로 8호보이라대보수를 끝내는 전례없던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이런 실례는 많다. 당일군들은 석탄화차들이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면 당원들과 함께 지하콘베아실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바닥에 널린 탄들을 긁어모아 보이라의 정상운영을 보장하였고 주파수변동으로 열생산2직장의 보이라들에 긴급정황이 조성되였을 때에는 대중의 앞장에서 불몽치를 들고 얼어붙은 중유관을 녹이는 전투를 벌려 돌파구를 열어제꼈다.

기적의 샘-뜨거운 정

당위원회일군들의 당원들과의 사업에서 찾게 되는 좋은 점은 다음으로 뜨거운 정으로 당원들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는것이다.

지난해 5호타빈발전기대보수실태를 료해하던 책임비서는 한 오랜 교급기능공이 다리때문에 고생하면서도 치료를 미루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무작정 자기 차에 태워 그를 병원에 입원시킨 책임비서는 초급당비서와 함께 면회도 자주 가면서 진정을 다하였다. 당일군들의 진정은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전투장으로 달려나온 그는 타빈조립에서 나서는 중요한 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어깨를 들이대여 타빈발전기대보수기일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실례도 있다.

열생산2직장 8호보이라를 담당한 조직부의 한 일군은 설비운영이 원만하지 못한 원인을 알아보는 과정에 담당기사의 얼굴이 그전처럼 밝지 못한것을 포착하였다.

알아보니 원래 머리가 좋고 일에 열성이던 그가 가정적고충으로 일에 전심하지 못하여 사람들의 말밥에까지 오르고있었던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책임일군들은 그와의 사업에 품을 들였다. 자주 만나 담화도 하면서 그가 입당할 때 다진 맹세를 지켜 변함없이 당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었고 제기되는 기술적문제해결에서 그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사업권위도 세워주었다. 그리고 보다 좋은 살림집도 마련해주면서 생활을 혈육의 정으로 돌봐주었다.

이런 과정에 그의 사업과 생활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현장에서 살다싶이하면서 보이라대보수를 제기일에 질적으로 끝내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당원들의 심장에 먼저 불을 지피니 단위사업에서는 전례없던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오랜 기간 리용하지 못하던 타빈직장 1호급수펌프를 자체의 힘으로 보수하고 전기직장에 능력이 크면서도 국산화된 물전해공정을 새로 꾸린것을 비롯하여 생산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였으며 경기장과 수영장, 전자열람실 등이 그쯘히 갖추어진 종합적문화생활기지인 부흥원도 훌륭히 건설하게 되였다.

당원들이 앞장에서 지펴올린 불길이 온 기업소에 창조와 혁신의 거세찬 불김을 안아온것이다.

그렇다.

모든 당조직들에서 당원들의 심장에 먼저 불을 지펴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킬 때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질것이다.

본사기자 김 향 란

육탄이 되여 돌파구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은 대중의 앞장에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선봉투사이며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 정치활동가입니다.》

오늘의 총공격전의 돌파구를 육탄이 되여 열어제끼고있는 우리 당원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더운가.

없어진 보통날

얼마전 온몸이 꽁꽁 얼어들었어도 희열을 억제 못하며 얼싸안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산소분리기2직장 당원들이였다.

《끝내 해냈어!》

《이런 멋에 일하는것이지!》

뜻밖에 제기되였던 액체공기흡착기보수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낀 기쁨과 환희의 분출이였다.

원래 한주일은 잘 걸릴 작업량이였다. 무엇보다도 분리탑내부의 온도가 사람이 들어가 작업할수 있을 정도로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

당원들의 심장은 펄펄 끓어올랐다. 용팡로의 정상가동과 선철생산이 우리에게 크게 달려있다. 육탄이 되여 길을 열자.

직장장 박명철, 초급당비서 김기수동무들과 당원들이 교대로 뛰어들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한주일을 하루로 앞당겨 보수를 끝낸것이였다.

이런 불같은 하루하루가 흐르는 황철이다. 그러니 황철에는 보통날이란 없다. 위훈으로 충만된 비상한 날들만이 흐른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교대에서 교대로

불같은 실천의 감화력은 비상히 크다.

어느날 막장에 들어간 덕성탄광 1갱 부문당비서 유룡덕동무는 채탄3중대 청년돌맹원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몸들을 돌보면서 일하라고 등을 떠밀기를 그 몇번, 그러나 자기 교대를 마치고도 다음교대를 또 이어가는 그들,

바로 그들의 심장에 말없이 불을 지펴준 사람들이 있었다.

중대장 최명로, 채탄공 안승호, 서인석동무들을 비롯한 채탄3중대의 당원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접한 이후 이곳 당원들은 집을 잊었다. 오직 더 많은 석탄을 캐기 위해 막장에서 살다싶이하였다.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막장을 뜨지 않고 교대를 이어나갔다.

그러니 그들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본받아 청년돌맹원들이 일떠서는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교대에서 교대로!

바로 여기에 비상히 앙양된 당원들의 헌신적인 투쟁기풍이 그대로 비껴있는것이 아닌가.

한 모 습

어느덧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했다. 하지만 안악군 룡산협동농장 제6작업반장 남일상동무와 부문당비서 안명선동무는 사무실을 뜰줄 모르고 기쁨에 겨워 작업반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작업반에서 높이 세운 1월 거름생산목표를 예견했던것보다 20일이나 앞당겨 끝내게 된데는 바로 대오의 앞장에 선 당원들의 땀과 노력이 진하게 슴배여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접하고 당조직을 찾아와 높이 세운 거름생산목표를 앞당겨 점령하자고 불같이 웨치던 당원들이며 몸이 아픈 속에서도 남보다 큰 짐을 지고 내달린 당원, 사랑과 정으로 대중을 고무해준 당원…

그들은 나이와 성격, 당생활년한도 달랐다. 하지만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높은 농업생산실적을 이룩하려는 지향을 안고 헌신하는 그들은 한모습, 전위투사의 한모습이였다.

본사기자 리 정 수

상원로동계급의 영웅적인 투쟁본때로 떨쳐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승강기공장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경쟁열의이자 실적의 높이

전천착암기공장 3가공직장 부문당위원회에서

하루일을 마친 로동자들이 너도나도 경쟁도표판앞으로 모여들었다. 하루사업총화가 여기서 진행되군 한다. 착암기부분품가공에서 또다시 혁신을 이룩한 긍지와 보람이 그들의 얼굴마다에 비껴있었다.

《고명학동무의 붉은 줄이 2배로 껑충 뛰여올랐어요.》

《곽춘영동무의 실적도 1.4배로 높아졌구만.》…

여기저기에서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꽃다발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혁신자들을 바라보는 부문당비서 강영남동무의 마음은 흐뭇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쟁운동은 광범한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올해 첫 전투가 시작된 날 이른아침이였다. 전투현장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해설하는 직관물, 표어들과 함께 큼직한 경쟁도표판이 전개되였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호소를 받아안고 부문당비서와 당세포비서들이 품을 들여 만든 경쟁도표판이였다. 신년사에 제시된 대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는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지향이였던것이다.

《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오늘 전투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라는 글발이 씌여진 경쟁도표판앞에 선 로동자들의 각오는 비상히 앙양되였다. 특히 당원들의 기세가 높았다.

착암기부분품가공에서 선봉투사의 영예를 떨친 자랑을 안고 당대회를 맞이하자!

당원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첫날전투에서부터 실적을 올렸다. 직장장 라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소재보장대책을 앞세우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출퇴근길에서나 작업휴식시간에 당 제7차대회가 열릴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착암기부분품가공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한 자랑을 안고 영광의 그날을 마중가자는 량선녀동무의 절절한 목소리는 로동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하였다. 녀성의 몸으로 30여년간 선반공으로 일해오는 선동원의 격식없는 선동과 이신작칙은 로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선반, 볼반을 비롯한 기대들의 동음이 쉬임없이 울리고 실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뛰여올랐다.

첫날전투에서 계획을 넘쳐 수행한 로동자들은 날과 날을 이으며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직장에 경쟁열풍을 일으키는데서 부문당위원회가 중시한 문제는 당원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도록 한것이다.

당세포비서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풍모에 대하여 로동자들에게 감동깊게 해설해주면서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로력부족으로 일반작업반에서 실적이 떨어지고있을 때 김성혁동무를 비롯한 실린더작업반 당원들이 떨쳐나 도와주었고 기능이 어린 로동자들의 공구가 못쓰게 되였을 때에도 당원들이 자기들의 공구를 서슴없이 내주었다. 그 나날에 로동자들의 가슴속에 일터와 집단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뜨겁게 자리잡게 되였고 경쟁도표판의 붉은 줄은 부쩍부쩍 키를 솟구었다.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격동적인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도 부문당위원회는 로동자들의 경쟁열의를 북돋아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전개하였다.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파학자들처럼 일하고있는가라는 시대의 물음을 심장에 새겨안은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낮에 밤을 이어가며 전투를 벌렸다. 당세포비서 송영길동무가 불편한 몸이지만 전투장에 뛰여들어 혁신의 불꽃을 날릴 때 불반공인 최금철동무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실한 땀을 바치였다.

비상히 앙양된 경쟁열의속에 착암기부분품가공실적은 날을 따라 높아졌다.

경쟁도표판앞에서 진행된 총화모임에서 부문당비서는 다시금 강조하였다. 경쟁도표의 붉은 줄은 단순히 실적만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우리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충성과 애국심의 열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고.

본사기자 김 승 표

거울

단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당원들은 당의 밀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대고조의 선봉에서 오늘의 순간순간을 값높은 헌신과 위훈으로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얼마전 룡양광산에 대한 취재길에서 나는 당원의 참된 삶에 대한 생각을 새삼스럽게 가져보게 되였다.

우리가 금산갱에 들어섰을 때는 작업의 설참이였다.

갱장 박춘봉동무의 주위에 광부들이 모여들었다.

《당 제6차대회때 룡양의 당원들의 기세가 참 대단했소. 그 모습이 오늘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무엇때문이겠소.》

이렇게 서두를 뗀 갱장의 이야기는 당 제6차대회를 맞으며 벌어진 100일전투의 격전장으로 광부들을 이끌어 한 청년갱 김창섭채광소대의 당원들에 대한 이야기…

통행한 일군은 당 제7차대회 소집과 관련한 소식이 전해진 때부터 우리 광산사람들속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때없이 화제에 오르군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끝을 맺는것이였다.

《말하자면 거울을 들여다보고있는셈이지요.》

순간 나의 가슴은 높뛰였다. 당 제6차대회때의 당원들을 거울로 여긴다는 그의 말에는 실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있었다.

그때의 당원들의 모습이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바로 당 제6차대회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한가지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발휘한 그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헌신적인 투쟁기풍때문이리라.

하다면 오늘 우리 당원들의 모습도 먼 후날 후대들의 거울로 될수 있을가.

룡양의 당원들이 전세대 당원들을 거울로 삼으며 오늘의 하루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살며 투쟁하고있는것도 그때문일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그들의 모습을 다시금 눈여겨보았다.

거울!

그렇다. 바로 그것이 조국과 후대들앞에 가장 떳떳이 나설수 있는 조선로동당원의 가장 고결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한 영 철

한드레벌은 봄을 부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더불어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진 태천군 은흥협동농장벌에 흰눈이 덮이였다.

한드레벌의 맵짠 추위가 모든것을 얼굴듯 기승을 부린다. 허나 한가지만은 어쩌지 못하고있다.

그것이 바로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진군에 용약 떨쳐나선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충만된 애국열, 투쟁열이다.

질좋은 거름을 가득 싣고 발동소리 높이 울리며 포전을 달리는 뜨락또르들, 흰눈덮인 드넓은 벌에 거름더미들을 쌓아가는 농장원들…

한드레벌을 온 나라가 다 아는 사회주의대지로 전변시켜준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알곡증산으로 보답하려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시간을 다투며 거름더미들이 솟아나고있다.

더욱더 고조되는 전투장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기름지운 땅에 풍년씨앗, 행복의 씨앗을 묻어 한드레벌에 낟알더미를 높이 쌓으려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애국충정의 숨결인것이다.

글 본사기자 리 승 철
사진 본사기자 김 종 훈

맹산군목재일용품생산협동조합을 찾아서

자기 멋을 자랑하는 흥겨운 일터

우리는 얼마전 새해전투로 들끓는 맹산군목재일용품생산협동조합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우리와 만난 관리위원장 리용남동무는 긍지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조합원들의 자랑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내가 사는 내 고장의 흔한 나무를 가지고 만든 가구제품이 이제는 인민의 호평받는 제품으로 소문이 자자하니 말입니다.》

자기 멋을 적극 살려가고있는 주인공들을 어서빨리 만나고싶은 충동으로 우리는 제창 제재작업반의 현장을 찾았다.

덩지큰 기계설비들의 동음이 웅글지게 들려왔다. 아름드리통나무들이 렬을 지어 짝 들어찬 현장은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벅찬 숨결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했다.

제재공들이 날렵한 동작으로 통나무들을 번속 대차우에 올려놓자 그것이 자동적으로 띠톱에 맞물려 잠간사이에 소재가 되여 줄줄이 쏟아지고있었다. 볼수록 흐뭇하였다. 눈깜빡할 사이에 무둑히 쌓인 소재들이 다시 대차에 실려 건조로로 향하였다.

제재공정에서의 자동화가 실현되여 지난 시기보다 로력을 절반이상 절약하면서도 일을 헐하게 하고있다는 이곳 작업반장의 이야기를 뒤에 남기고 우리는 어느덧 가공작업반에 이르렀다.

첫 공정인 절단기에서 가공소재가 기술지표대로 절단되자 그것이 이동식롤전기를 거쳐 다음흐름식공정으로 실려갔다. 수평수압기며 자동수압대패기, 촉살기 등 흐름식가공설비들에서 가공되여나온 조립소재들이 종류별로 무둑히 쌓이였다.

우리가 가공작업반원들의 흥겨운 작업모습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데 동행한 일군은 더 자랑하고싶은것이 있다는듯이 우리를 조립작업반으로 이끌었다.

조립, 완성작업반 그 어디가나 자동화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나왔고 자기 지방에서 생산하는 갖가지 나무들로 자재걱정없이 무엇이나 척척 만들어내는 이곳 조합원들의 자신심에 넘친 모습을 볼수 있었다.

우리는 과학기술보급실과 제품전시장을 돌아보면서 콤퓨터에 의한 현장감시 및 지령체계가 훌륭히 실현된 일터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남다른 긍지와 보람에 대하여 충분히 엿볼수 있었다.

창으로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 지방에 흔한 자재로 인민의 호평받는 소비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척척 생산해가는, 그야말로 자기 멋을 자랑하는 흥겨운 일터였다.

방 인 철

기대되는 파울염소기르기

득장구원료기지사업소에서

축산에서 기본은 종자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득장구원료기지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하는 말이다.

원료기지사업소의 축산기지를 돌아보면 십분 리해된다. 구소재지에서 수십리 떨어진 방목지에서 10여마리의 1대잡종염소를 기르고있는데 그 전망이 기대되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도 기본은 종자개량입니다.》

사업소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이 염소를 기르면서부터 품을 적게 들이면서 고기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고있다고 한다.

이 염소는 지난 시기 기르던 염소보다 빨리 자라기때문이다.

지난해 3월부터 10여마리의 새끼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한마리의 무게가 평균 25~27kg이다. 이것은 지난 시기 기르던 염소보다 무게가 8~10kg 더 나가는것으로 된다.

지난 시기 새끼염소는 낳은 때로부터 30여일 되여서부터 풀을 먹었는데 이 염소는 25일만에 풀을 먹기 시작하였다.

이 염소는 또한 먹이를 가리지 않고 거의다 먹어 좋았다.

사업소에서는 이 염소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방목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였다.

대체로 봄철에는 오전 7시 이후부터 11시까지,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방목하였다.

여름철에는 방목시간을 더 늘이였다.

겨울철에도 날씨조건을 보아가면서 방목을 하였다. 눈이 녹은 지역의 마른 풀을 뜯어먹기때문이였다. 이렇게 하니 병이 예방되였다. 그것은 이 시기에 추위와 병을 이겨낼수 있는 면역이 강해졌기때문이였다.

사업소에서는 염소우리를 2층으로 건설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였다.

겨울철에는 아래층에서 염소를 기르고 날씨가 더워지면 웃층에서 길렀다.

특히 겨울철영양관리를 잘하는데 힘을 넣었다. 방목공들은 먼저 아래층에 부식질이 많은 흙을 두툼히 깔고 염소를 길렀다.

그리고 우리에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게 한것은 물론 해비침률이 높은 낮시간에는 공기갈이를 해주며 하루에 한번씩 콩짚과 남새부산물, 알곡부산물로 가공한 먹이를 먹여 염소가 겨울을 무사히 넘기도록 하였다.

염소를 이렇게 기르니 봄에 질좋은 거름을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웃층은 바람이 잘 통하게 하여 염소가 여름철에 더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였다.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열마 있으면 염소들이 새끼를 낳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마리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파울염소를 많이 기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사업소일군들은 몇해전부터 우량품종의 종자염소를 마련하는데 많은 품을 들이였다.

그 과정에 어느 한 단위에서 파울염소를 기른다는것을 알게 된 그들은 해당 일군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였다. 그리고 그곳 기술자들의 방조밑에 이미 두해전 가을에 있던 염소에게 인공수정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지난해 3월에 1대잡종새끼염소를 낳았다.

이렇게 되여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파울염소를 기르기 시작한 일군들과 방목공들은 지금 그 마리수를 더 늘여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일념안고 사양관리를 기술적으로 하고있다.

하기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업소의 파울염소기르기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본사기자 김 창 길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자

경기조직방법을 개선하여 얻은 실리

천내리세멘트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팡팡 생산하고있는 천내리세멘트공장은 종업원들의 체육열기 또한 매우 높은 단위로, 모범체육공장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비결은 공장체육사업 특히 년중 체육경기를 방법론있게 조직하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독특한 사업기풍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경기를 널리 조직하면 체육을 대중화하여 사람들의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고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며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는데도 좋습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저녁퇴근시간후에 진행된 탁구경기를 금방 끝마친 일군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공장의 곳곳에 롱구장, 배구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꾸려져있으며 직장들에는 경기복장과 태권도복, 체육기재들이 그쯘하게 구비되여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가 더욱 주목하게 된것은 종업원들의 드높은 체육열의가 조건이 잘 갖추어졌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는 것이였다.

실지 몇해전까지만 해도 공장의 일부 일군들과 대다수 종업원들속에서는 체육사업은 따로 시간을 내서 진행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다나니 품을 들여 꾸려놓은 체육시설들도 큰 은을 내지 못하고있었다.

종업원들의 체육열의를 부쩍 높일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론을 찾아내야 했다. 당의 대중체육방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할 방도를 모색하던 김광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국가적기념일과 주요계기들에 진행되군 하는 공장적인 체육경기에 주의를 돌렸다.

여러 계기들에 공장적인 체육경기도 자주 조직하였는데 왜 전반적인 종업원들의 체육열의는 높아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과정에 체육경기조직방법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를 승자전의 방법으로 조직하여왔다. 그러다나니 한차례의 승자전경기에서 진 팀들은 더는 경기를 할 기회가 없는것으로 하여 체육경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것이 보편적이였다. 그러다나니 종업원대중의 체육열의가 올라가지 않는것은 명백한것이였다.

체육경기를 조직하는 목적은 단순히 승부를 내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대중의 체육열의를 부쩍 높이고 집단안에 체육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때 명실공히 당의 대중체육방침관철에 이바지했다고 할수 있지 않겠는가.

이로부터 일군들은 모든 경기를 련맹전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토의하였다.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련맹전의 방법으로 다양한 종목의 체육경기를 성과적으로 조직하는데 필요한 조건보장대책을 세우는데 품을 넣었다.

새로운 경기조직방법의 효과는 매우 컸다. 지난 시기와는 달리 한차례 경기에서는 비록 졌어도 훈련을 더 잘하면 다음번 경기에서는 이길수 있다는 신심으로 어느 팀이나 분발하게 되였으며 이것은 나아가서 종업원들의 체육경기에 대한 관심을 부단히 높여주었다. 련맹전경기들이 활발히 벌어지는 과정에 어느덧 종업원들이 작업교대후 집으로가 아니라 롱구장, 배구장 등에로 달려가 체육기술을 련마하느라 땀을 흘리는것이 례사로운 광경으로 되였다.

근 20개 팀이 10여개 종목의 경기들을 련맹전의 방법으로 진행하자면 근 30일이라는 기일이 걸린다. 이런 경기를 공장에서는 해마다 5~9차정도 조직하였다. 또 공장적인 경기가 없는 시기에 직장들에서는 주, 월별로 계획적으로 종목별경기들을 자주 조직함으로써 이곳은 말그대로 온 한해동안 체육분위기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흥성거리게 되였다.

공장일군들이 잘한것은 또한 체육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조직사업을 더욱 깊이있게 짜고든것이다. 선수본위주의적으로 체육경기를 진행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것이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대중체육사업의 실리를 보장할수 없었다.

일군들은 한명의 종업원이 한 종목의 경기에만 참가할수 있다는 내용을 경기조직요강에 첨부시켰다. 결국 축구, 롱구, 배구, 탁구, 태권도를 비롯한 10여개 종목으로 나뉘여 진행하는 체육경기에 거의 모든 종업원들이 다 참가하게 되였으며 지난 시기 몇몇 잘하는 종업원들만을 체육경기들에 내보내던 경향이 사라지게 되였다.

일군들은 또한 매 단위들에서 점수가 높은 일부 종목들에만 치우치는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 종목에 따르는 점수평가방법도 지난 시기와 전혀 다르게 규정하였으며 경기시상도 그에 맞게 따라세웠다. 결과 공장안에 드세찬 롱구바람이 일어번지고 단체들만 진행하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맞서기, 위력, 특기경기까지 벌어지는 태권도경기에 대한 단위들의 열의도 비상히 높아졌다.

이밖에도 일군들은 대중의 체육열의를 더욱 앙양시키기 위해 일군들과 로동자들사이, 사무원들과 로동자들사이의 경기와 같은 다양한 경기들도 조직하였다. 이 나날에 공장의 체육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온 한해동안 공장은 드세찬 체육열풍으로 끓어번지고 경기들이 진행될 때마다 응원열기도 더욱 고조되였다. 명실공히 이 공장의 체육사업은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고 나아가서 종업원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히 단련시키며 혁명적 열정과 랑만에 넘쳐 생산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든든한 밑천으로 되였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천내리세멘트공장에서처럼 어느 단위에서나 일군들이 앞장에서서 대중의 심리에 맞게 대중체육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드는데 품을 아끼지 않을 때 당의 대중체육방침의 생활력을 끊임없이 발양시킬수 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진군에 떨쳐나선 종업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며 대중체육사업에서도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 한마음안고 부단히 사색하고 실천해나가는 이 공장 일군들의 앞으로의 사업성과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지 혁 철

대중체육열풍과 필승의 기상

◇ 뜻깊은 올해의 첫 체육의 날인 지난 1월 10일 수도 평양에서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집단달리기와 대중롤동체조, 건강태권도모범출연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각지의 수많은 단위들에서도 롱구, 바줄당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활동들이 활발히 벌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새해벽두부터 방방곡곡에서 더욱 고조되고있는 대중체육열기는 온 나라 인민에게 끝없는 혁명적 랑만과 전투적기백을 안겨주고있다. 뿐만아니라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첫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으로 하여 하늘에 닿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높이 부강조국건설에 한몸 다 바쳐갈 애국의 열정을 끊임없이 분출시키고있다.

◇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는것, 이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천만군민의 힘을 더욱 튼튼히 다져주고 폭발시켜주는 또 하나의 추동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육을 즐겨하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혁명력사에는 체육의 감화력으로 인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승리의 신념을 굳게 다져준 뜻깊은 화폭들이 새겨져있다.

정치적특점은 만점이였다고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감회깊이 회고하신것처럼 항일의 나날 수십명의 청년들을 유격대입대에로 떠밀어준 옥돌골에서의 축구경기,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수호전의 승리와 광명한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더욱 북돋아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차게 일으켜주신 롱구바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가 필승의 기상으로 더욱 약동하도록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환희롭게 펼쳐주신 인민체육의 새 화폭—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정녕 우리 인민처럼 영원한 태양의 빛발아래 체육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또 하나의 무기로 틀어쥐고 승승장구의 한길로 줄달음치는 인민은 세상에 없다. 력사가 보여주듯이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어디서나 드높은 체육열기로 활화산마냥 들끓을 때 인민의 애국정신은 백배해지고 그와 더불어 초음속비행기속도로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힘, 우리의 자강력은 백두의 산악과도 같이 더욱 억세게 다져질것이다.

◇ 력사적인 올해의 전투들에서 드높은 체육열기, 체육열풍으로 더 큰 승리를 안아오자.

아무리 해야 할 사업이 방대하고 어려운것이 많아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것이 체육사업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일군들이 앞장에서서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체육열풍의 위력을 더욱 가슴후련히 떨치며 새로운 기적과 혁신창조의 화폭들을 펼쳐나가야 한다.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을 지켜선 인민경제 선행부문에서,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부문에서, 부강조국건설의 최전선인 과학전선에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이 달려나간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적기백이 약동하는 대중체육의 우렁찬 함성이 끊임없이 터져오를 때 우리의 자강력은 더욱 치솟고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부르는 증산의 동음, 비약의 기적소리,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창조자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 피눈이 되여 날뛰는 적들은 더욱 전률할것이다.

모두다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드세찬 대중체육열풍, 애국의 열풍을 일으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체육으로 흥하고 체육으로 강대해지는 나라로 빛내여나가자. 체육열풍으로 우리의 정신력과 자강력을 더욱 세차게 폭발시키자.

약동하는 기백을 더해주는 태권도바람

만경대구역 칠골남새전문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태권도를 적극 장려하여 누구나 다 태권도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경대구역 칠골남새전문농장은 전국적으로 태권도를 잘하는 농장으로 자랑떨치고있다. 전국농업근로자들의 민족체육경기대회에서 련속 우승의 영예를 빛내이고있는 태권도농장이다.

여러 농장원들의 집들에 가면 태권도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과 금메달, 상장들을 볼수 있다.

농장에서 태권도바람이 일기 시작한지도 거의 20년이 되여온다.

당시 농장의 실정에 알맞는 체육종목을 고르기 위해 고심하던 이곳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받아안고 농장적인 주요체육종목으로 태권도를 선정했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언제 한번 식어본적이 없는 농장의 태권도열풍이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농장에서는 농장원들이 새로 들어오면 의례히 태권도보급사업을 진행하는 랑만적인 화폭들이 펼쳐지고 전국적인 농업근로자들의 태권도경기들에도 참가하여 련이어 우승하는 자랑도 꽃펴났다.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곳 농근맹일군인 김성칠동무는 태권도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 배울수 있고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마음껏 할수 있는 신체단련에 아주 좋은 체육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농장청년들이 저저마다 태권도를 직심스레 배우고있는데 그 기세가 간단치 않다고, 그래서 태권도농장의 앞날은 더욱 밝다고 신심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하루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까지 자체로 발차기동작을 익히느라 거울앞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큰 거울로 교체해주었다는 한 처녀농장원의 어머니의 이야기도, 태권도를통작의 완벽한 숙련을 위해 아침달리기와 체조를 비롯한 여러가지 운동도 정상적으로 하고있다는 청년농장원의 이야기도 무심히 들려오지 않았다.

결코 태권도에 대한 애착으로만 끝나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였다.

농장의 태권도선수인 오금별동무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농장에 대한 긍지가 더욱 커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누구를 만나도 우리 농장이라고 정담아 부르는 자기 교장을 태권도열풍속에 더욱 흥하는 교장으로 빛내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선 농업근로자의 본분을 다해갈 신심과 결의가 비껴있는 이야기들이여서 우리를 더욱 감동시키였다.

관리위원장 김동삼동무는 온 농장이 태권도열기로 들끓으니 어딜 가나 혁명적열정과 랑만이 넘쳐나 좋고 그로 하여 집단의 단합이 더욱 강화되니 농사실적이 높아져서 좋다고 하면서 우리 당 대중체육방침의 정당성을 다시금 절감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뜻깊은 올해의 첫 체육의 날에도 관리위원회청사의 앞마당에서는 농장태권도선수들의 태권도들 시범출연에 이어 전체 농장원들이 태권도를 하는 장면들도 펼쳐졌다. 이렇게 농장에서는 태권도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고있다.

체육을 해도 우리의것, 우리의 민족체육을 즐겨하며 온 나라의 태권도화에 적극 이바지해가는 농장의 현실이 얼마나 좋은가. 그와 더불어 젊음으로 더욱 약동하는 이곳 농장의 혁신의 새 소식, 뜻깊은 올해를 더욱 빛내이는 전례없는 남새증산의 새 소식도 끊임없이 전해질것이다.

강 효 심

어김없는 학습시간

국가설계지도국 국토계획설계연구소 일군인 리영길동무는 매일 체육과 관련한 학습도 어김없이 진행하고있다. 그가 이렇게 체육에 대한 학습도 생활화하게 된 동기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에게 있어서 지식수준이자 실력이고 사업실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연구소의 일부 일군들은 연구사업일면에만 치우치면서 대중체육은 그저 일정한 계기때마다 경기를 조직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니 종업원들의 체육열의도 높지 못하였다.

연구소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리영길동무는 이러한 실태를 두고 생각이 깊었다.

어느날 배구공을 한아름이나 구해가지고온 그를 보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깜짝 놀랐다.

《우리 한번 체육열풍을 본때있게 일으켜봅시다.》

그가 한 말은 짧았으나 고심어린 탐구가 안받침된 빈틈없는 조직사업이 뒤따랐다.

대중체육활동을 원만히 벌릴수 있는 체육기자재와 체육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졌다. 또 일군들부터가 경기장에 남먼저 뛰여들어 체육바람을 일으키게 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것이 아니였다.

연구소에서 조직하는 부서별 배구경기에 참가한 종업원들까지 배구경기규칙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다나니 경기도중에 자주 애를 먹고있었던것이였다.

리영길동무는 이러한 사실을 스쳐지나보내지 않았다.

자기의 얼굴을 쳐다보던 선수들의 눈빛이 가슴에 파고들었다.

(우리 일군들이 체육사업에서도 누구보다 아는것이 많고 막히는데가 없어야 대중의 교양자, 조직동원자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지 않겠는가.)

이때부터 그의 하루일과에는 체육학습시간도 생겨났다.

당의 대중체육방침을 더욱 깊이 학습하고 달라진 국제경기규칙뿐아니라 매 종목의 각이한 기술과 전술들, 세계적인 체육발전추세까지 환하게 꿰뚫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당면하게 해야 할 사업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 찾아가보아야 할 곳도 많아 늘 시간이 모자라는 그였지만 이 일과를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그리고 종업원모임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을 리용하여 대중체육열의를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폭넓은 체육지식과 상식적인 내용들을 안받침하여 실감있게 진행해나가니 누구나 좋아하였다.

한편 부서별체육경기에서는 그 종목에 대한 규칙과 전술 등에 대한 종업원들의 인식정도를 료해평가하여 최종경기점수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대중의 체육열의를 더욱 높이게 하였다.

이제는 다른 단위들에서 이 연구소림을 이기는것을 목표로 내세울 정도로 종업원들이 높은 배구기술을 소유하게 되였을뿐아니라 체육과 관련한 풍부한 지식과 상식들을 많이 습득하게 되였다.

그 만큼 연구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체육경기들의 수준도 매우 높다.

경기심판은 연구소의 일군들이 말아하고 또 누구나가 경기규칙들을 깊이 파악하고있기때문에 자그마한 편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파정에 연구사, 종업원들의 체육의욕이 나날이 높아지고 또 드세찬 체육열풍속에 집단의 단결력도 더욱 강해지고있다.

체육강국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지금 어디서나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자기 단위를 체육으로 흥하게 하자면 일군들부터가 알아야 한다.

일군들이 부단한 학습을 통하여 아는것이 많아야 대중의 체육열의를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방법론도 찾아내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는 선구자, 기수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오늘도 매일과 같이 중단없는 학습을 통하여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면서 그에 토대하여 당정책의 요구대로 단위의 체육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묘술을 탐구실천해가고있는 리영길동무의 사업경험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 철 호

선군조선청년들의 혁명적기상과 불굴의 기개를 힘있게 과시

2 370여개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조가 지난해 농업생산계획을 넘쳐 수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끝바로의 정신으로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청년작업반원, 청년분조원들의 철석의 신념은 기적창조의 원동력이 되였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이 그 앞장에 섰다. 청년작업반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정보당 10t이상의 논벼를 무조건 생산하기 위해 잡도리부터 단단히 하였다.

지력이자 알곡증산이다. 이것을 명심한 이들은 그전에는 엄두도 못내던 정보당 40t의 유기질비료실어내기를 전면적에 진행하였다.

파학농사시대에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기적을 창조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명심한 그들은 대담하게 큰모재배방법을 전면적에 받아들여 농사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좋은 작황을 펼쳐나갔다.

당이 정해준 침로따라 폭풍처 내달리는 청년전위들의 끝바로의 정신은 기적을 낳았다.

논벼를 정보당 10t이상 생산하여 많은 애국미를 바침으로써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는 우리 청년전위들의 영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였다.

위대한 당의 손길아래 2 370여개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이 지난해 농업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많은 애국미를 바치였다. 이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우리 청년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정신으로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도 알곡생산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과시하였다.

그들은 이른큰모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씨뿌리기를 종전보다 20일 앞당겼으며 기온이 내려가는 날밤이면 스스로 담요들을 가지고 달려나와 모판을 덮어주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그들은 분조를 몸소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잊지 못할 영광의 그날을 돌이켜보면서 영농공정별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갔다. 특히 자기 분조만이 아닌 농장의 명예를 함께 책임졌다는 일념안고 뒤떨어진 작업반들을 적극 도와나섰다.

그리하여 분조에서는 알곡생산계획을 130%이상 넘쳐 수행하였으며 많은 애국미를 바치였다.

그들의 소행은 일편단심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전위투사들의 기개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드세찬 공격정신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농촌청년들이 작렬하는 폭약과 같이 일격에 산도 허물고 강줄기도 막는 드세찬 공격정신으로 지난해 알곡생산에서 기적을 창조하였다.

곽산군 룡산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은 알곡증산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 야심만만한 배심으로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지난해 알곡생산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이들은 왕가물을 극복하기 위해 400여m의 용수로확장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완공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용기백배하여 공사를 다그쳐나갔다. 짧은 기간에 공사가 결속되고 논에 물대기를 중단없이 진행하게 됨으로써 지난 시기 정보당 4t밖에 내지 못하던 간석지논에서 7t이상의 알곡을 생산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이 땅이 생겨 처음 보는 소출을 내고 알알이 고른 알곡을 애국미로 바친 청년들의 이 소행은 농장원들에게 불가능을 모르는 완강한 공격정신이 기적을 낳는 원천이라는것을 다시금 깨우쳐주었다.

증산군 풍정협동농장 청년작업반원들도 알곡생산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할 높은 목표밑에 과감한 투쟁을 벌려나갔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야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그들은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더 큰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정보당 20t이상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포전에 실어내는 혁신적성과를 거두었다.

펄펄 끓는 청춘의 더운 피로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맨 앞장에서 열어나갈 불같은 열정안고 그들은 왕가물을 극복하기 위한 자연과의 전투에서도 청춘의 기개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지난해 많은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에서 형언할수 없는 악조건에서도 동지적우애와 집단주의위력으로 맡겨진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안악군 대추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들은 집단적혁신으로 모든 포전들에 정보당 25t의 유기질비료를 실어내여 땅을 기름지게 걸구었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마다에 조아박고 떨쳐나선 그들은 모내기시기에 물이 부족한 악조건에서도 서로 돕고 이끌면서 모를 한포기, 한포기 논에 내였다.

그리고 농작물이 가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자체의 힘으로 물길을 막아 물원천을 확보하고 발동기와 양수기 2대를 해결하였다. 이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난해 분조에서는 알곡생산계획을 104%이상 수행하였다.

회창군 덕련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도 분조앞에 맡겨진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높은 목표밑에 열두바닥파기와 흙보산비료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거름원천이 부족하자 그들은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40여리나 떨어진 읍지구의 여러곳에서 진거름을 운반하였다.

혹심한 가물로 하여 농작물이 피해를 입자 그들은 여러곳에 우물을 팠다. 그리고 분조원들모두가 물지게를 지고 이른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사각이 30°가 넘는 비탈밭들을 오르내리며 물주기를 진행하였다.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청년들이 모인 집단이기에 지난해 분조에서는 알곡생산계획을 123%로 넘쳐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맹산군 중흥, 문덕군 룡림, 배천군 조옥희, 항구구역 신흥, 신천군 사창협동농장의 청년작업반들과 안주시 연풍, 의주군 홍남, 정주시 일해, 룡강군 포성3호협동농장 청년분조들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에서 지난해 알곡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고 애국미를 바치여 선군조선청년들의 혁명적기상과 불굴의 기개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 ※

청년작업반원들과 청년분조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지난해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맡겨진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었던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때문이라고.

지금 온 나라의 농촌청년작업반원들과 청년분조원들은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의 포성을 남먼저 울리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주 창 일

인디아특명전권대사 공화국의 날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공화국의 날에 즈음하여 쟈스민다르 카스투리아 주조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6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수용외무상, 심국룡, 리명산, 김형훈 등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인디아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쟈스민다르 카스투리아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인디아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더욱 확대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뿌리깊이 담운동 성원국들인 두 나라가 많은 국제문제에서 견해의 공통점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에서 긴장상태가 해소되고 평화적으로, 대화의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이 이룩되기 바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각하께서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고 하면서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이 빛나게 수행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리수용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공화국창건후 인디아정부와 인민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이겨내며 경제건설과 과학기술발전 등 강력한 국가건설을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최근년간 조선과 인디아사이의 쌍무적인 교류와 협조가 활발해지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인디아와의 친선협조관계를 중시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이라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인디아공화국 대통령 프라나브 무케르지각하와 나렌드라 모디수상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인디아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광명성절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 도착

장기생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이 2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한해농사성과는 자연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력, 자강력이 결정한다

양덕군 태흥협동농장 제5작업반의 논벼생산경험을 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정보당 10t이상의 논벼생산, 벌방에서 내건 이 목표를 점령한 산골작업반이 생겨났다.

양덕군 태흥협동농장 제5작업반의 일부 포전에서 두해전에는 강냉이를, 지난해에는 논벼를 각각 10t이상 생산하였다.

산골논벼농사에서 이룩한 기록적인 성과가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울릴데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떨쳐나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하늘탓이 아니라 신비주의탓

농사가 잘 안되는것이 하늘탓인가. 아니다.

이 작업반의 지난 시기의 농사과정이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두해전 가을 강냉이를 정보당 10t이상 낸 포전들이 생겨났을 때였다. 일찌기 작업반을 찾아오시여 강냉이를 정보당 10t 생산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놓고 온 군이 기뻐하였다.

이제는 논벼까지도 정보당 10t이상 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충동을 받은것은 작업반장 김기일동무만이 아니였다. 농장관리위원장, 기사장은 물론 군당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군들 역시 같은 생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지도하실 당시 작업반에는 논이 없었다. 따라서 수령님께서 강냉이를 정보당 10t 생산할데 대해서 주신 유훈을 오늘날 논벼를 10t넘게 대한 파업으로 접수하고 판철하는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고 도리가 아닌가.

모두가 이런 관점에서 새 출발을 하였다.

령도업적단위에 먼저 풍년이 들어야 온 양덕땅에 풍년이 든다. 대담하게 결심하고 달라붙자.

정보당 10t, 이것은 양덕사람들의 꿈이였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위대한 조국번영의 시대에 발걸음을 맞추지 못하고서는 마음편히 이 땅을 밟을수 없다고 생각한 일군들이였다.

그들이 이런 목표를 내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사람들이 산골강냉이농사는 파악이 있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논벼농사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저었다.

근거는 역시 산골농사는 하늘농사라는것이였다. 즉 양덕군은 해발고가 수백m에 달하고 서리없는 기간이 150여일밖에 안되는 두메산골이다. 따라서 정보당 10t이상 내는 우량품종을 재배할수 없다. 논벼농사가 손바닥뒤집기처럼 쉽다면 기후조건이 좋은 서해벌방에서도 10t을 내지 못하는 단위들이 많겠는가. …

그럴듯 한 론거였지만 과해치고 보면 농사가 잘되고 안되는 원인을 하늘탓, 자연기후조건에서 찾는 신비주의에 물젖은 목소리였다. 그것이 농장원들에게 미칠 영향과 그 후과를 놓고볼때 이 신비주의를 깨버리는것은 미룰수 없는 과업이였다.

그때 작업반장의 뇌리를 친것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다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금옥같은 명언이였다.

새겨볼수록 자강력이 용솟음쳤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전시킬 중요한 방도를 종자문제에서 찾고 우량품종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따져보았다. 이런때 경영위원회위원장 박승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몇가지 우량품종의 생육기일, 생육적산온도와 그에 맞게 찾아낸 모형태들에 대한 기술자료들을 내놓았다.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은 론의과정에 주품종으로 새 우량품종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사실 작업반에서는 지금까지 한가지 품종만을 리용해왔다.

이보다 소출과 낮은온도견딜성, 빛느낌성이 더 높은 중간늦종의 우량품종을 재배할수 없겠는가.

하지만 이 품종을 받아들이자고 하니 생육적산온도가 지대적조건에 맞지 않았다.

150℃의 부족한 생육적산온도를 보충해줄 방도를 찾아내야 하였다. 년중 0℃이상 되는 기일이 150여일밖에 안되는 지대적조건에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겠는가.

그 해결책을 경영위원회책임일군들이 내놓았다. 종전에 4월 초순에 하던 씨뿌리기를 3월 중순경으로 보름이상 앞당기자는 안이였다. 온실안에서 벼모를 기르면 능히 부족한 생육적산온도를 보충해줄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잎수는 7~8잎, 아지수는 2개이상 되도록 모를 크게 길러 소식재배를 받아들이면 능히 가능하다는것이였다. 또한 영양단지모를 지대적특성에 맞게 도입하는 문제도 합의하였다.

그후 경영위원회위원장과 기사장 박명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다매체편집물을 가지고 작업반에 나왔다. 모형태벌재배방법에 대한 편집물은 작업반원들의 눈을 희워주었고 옹근소출을 낼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다. 그것이 실천에 옮겨져 크게 은을 번것은 더 말할것이 없다.

지난해에는 보기 드문 왕가물이 들었지만 이들은 하늘을 처다보지 않고 여러개의 굴로를 파서 극복하였다. 또한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비롯한 각종 비료를 잎에 분무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이겨내게 하였다.

결국 이 작업반에서는 다수확을 내여 농사가 잘되고 안되는 것은 결코 하늘탓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였다.

땅탓이 아니라 경험주의탓

우리 조국이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이 된 시대에도 경험주의에 빠져 땅타발을 하고 있다는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은 논벼를 정보당 4~5t 정도밖에 내지 못하던 땅에서 지난해에 2~2.5배의 소출을 낸 새 기록창조자들의 목소리이다.

논벼 정보당 10t목표를 내세웠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양덕군은 전부 석비레투성이여서 논에도 모래기가 많고 토심이 얕은 토박한 땅이다. 지금껏 해마다 많은 거름과 흙보산비료를 넣어도 고작 논벼를 5t정도밖에 못낸 땅이다. 화학비료를 500kg도 받기 힘든 이런 나쁜 땅에서 이 목표는 희망한 꿈에 불과하다. …

작업반장의 심중은 복잡하였다. 수십년간의 농사경험을 내대는 그들의 주장을 론박할만한 과학적인 담보가 아직은 없었던것이였다.

그때 판리위원장 김혜순, 기사장 김경진동무들이 찾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거름생산은 곧 알곡증산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혁신할 생각을 해야지 그전에 하던것을 그대로 답습하여서는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설수 없다. 그들은 이런 관점에서 서로의 지혜를 합치였다.

화학비료의 효능을 2배이상 늘이자면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력평가의 중요한 지표는 부식질과 물리화학적성질, 다량 및 미량원소들이다. 지금까지 해마다 논에 여러가지 거름을 적지 않게 냈지만 아직도 이런 영양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유기질비료를 만들것을 요구하고있다. 그것이 정보당 10t이상의 강냉이를 내는데서 큰 몫을 한 진거름이 아니겠는가.

옳은 판단이였다. 우리 농민들이 오래전부터 써오면서 높은 효능이 확증된것이 진거름이였다. 진거름속에는 유기물질과 함께 질소, 린, 카리, 규소, 마그네시움, 칼시움, 붕소, 아연, 동, 망간 그리고 비타민, 아욱신 등 성장자극물질이 들어있다. 이런 비료성분들은 쉽게 분해되여 농작물에 리용됨으로써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

진거름을 어떻게 리용하는것이 합리적인가. 작업반장과 기술원 윤영남, 당세포비서 우광하동무들은 진거름속의 비료성분이 날아나는것을 막기 위해 흙 또는 탄재와 1:1로 섞은 분토로 가루거름을 만들어 리용하기로 하였다.

제일 걸린것은 원료확보였다. 이 문제를 풀자면 군소재지를 오가는 진거름달구지들을 년중 가동시켜야 하였다.

이 사업에서 작업반장이 에견성있게 잘한것이 있다.

콩 한말 먹이기보다 소신 한번 신기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부림소는 발통이 상하면 부릴수 없게 된다. 이것을 포착한 그는 그 해결을 스스로 말아나섰다. 작업반장은 야장간을 꾸려놓고 자체로 소신과 못을 만들게 하였으며 신기는 방법을 배워 자기 손으로 20여마리 부림소의 신을 한해에 여러차례 갈아신기였다. 부림소가동률이 오른것만큼 원료확보실적이 높아졌다. 군일군들과 가두인민반원들도 이 작업반을 적극 도와주었다.

작업반에서는 이렇게 마련한 분토로 만든 가루거름을 정보당 1t씩 논에 내고 모내기를 하였다. 그랬더니 잎색, 아지수, 이삭수 등 생육후반기까지 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산골물의 온도를 높여 모기르기와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한 실례 역시 그렇다.

이곳은 해발고가 높은 산간지대여서 물이 차다. 하지만 종전에 작업반에서는 별수없는 일로 여기면서 찬물을 그대로 리용하여 모기르기에 지장을 받군 하였다.

땅타발을 하며 낡은 경험을 탑습해서는 비약을 일으킬수 없다. 무조건 물온도를 5℃이상 높일 방도를 찾아내자.

작업반장의 이 호소에 모두가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크게 품을 들이지 않고서도 물온도를 높일수 있는 방법 즉 웃쪽의 포전들을 림시저류지로 만들고 태양열로 물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받아들이였다. 결과 모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줌으로써 좋은 결실을 보게 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작업반에서는 린성분은 타고장에 가서 실어온 린회토로, 카리는 재와 소배설물을 원료로 만든 후민산카리로 보충하여 지력을 높이였다.

지난해에 작업반에서는 화학비료를 정보당 500kg밖에 논에 내지 못했지만 일부 포전들에서 10t이상의 소출을 냈다. 결국 화학비료의 효능을 2배이상 늘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료해하시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현실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있다.

농사성과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력, 자강력이 결정한다.

그렇다. 이 작업반의 농사경험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당의 뜻이 영원한 진리이라는것을 다시금 증명해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래명호
사진 본사기자 신충혁

올해농사에서 또다시 통장훈을 부를 불같은 열의를 안고 농사차비에 떨쳐나섰다.

석회로와 함께 30여년

푸른 숲에 비낀 마음 보석에 비기랴

상농광산 부재직장 석회로소대장 김길수동무는 지난 기간 특출한 위훈을 세운 일은 없다. 하지만 30여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석회로를 지켜 한본새로 일해오고있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쉽지 않은 사람, 광산의 보배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있다.

광산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때로부터 선동원, 당세포비서를 거쳐 20여년간 소대장으로 일하면서 생의 자욱자욱을 아름답게 수놓아온 김길수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소대는 매월, 매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더운 여름철 로의 더운 열파 내려쪼이는 해빛속에서 땀을 철철 흘리면서도 일터를 뜨지 않고 더 많은 소석회를 생산하기 위해 애쓰는 그를 보며 사람들은 누구나 머리를 숙이군 한다.

소대원들의 마음속생각도 깊이 헤아리며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그의 뜨거운 정과 사랑에 의하여 소대는 오늘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오늘도 김길수동무는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불타는 마음을 안고 맡은 일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상 두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변압기를 보내주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 대동강전기공장에서 — 본사기자 찍음

땀

사실 대한추위가 한창인 지금 계절에 땀에 대해 말한다는것이 무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땀은 결코 덧없이 흘리는 그런 땀이 아니라는것이다.

우리가 수십년세월 산림감독원으로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꾸어온 박경남동무를 만나기 위해 봉산군 오봉리를 찾은것은 소한이 지나고 대한을 앞둔 때였다.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여서 우리는 곧장 박경남동무의 집을 찾아갔다.

집마당에 양묘장을 꾸려놓고 나무모도 키운다니 이런 날씨에는 필경 집에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아니나다를가 그의 집마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있었다.

그런데 그속에 박경남동무는 없었다. 이른새벽에 산으로 올랐다는것이였다.

우리가 그를 만난것은 눈보라사나운 산속 오솔길에서였다. 온몸에 눈가루를 들쓴 그를 눈여겨보던 우리는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로 땀이 흐르는것이 아닌가.

무척 놀라와하는 우리에게 박경남동무는 높고낮은 산들을 돌고나면 자연히 땀이 솟군 한다고 혼연히 대답하였다.

박경남동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림감독원으로 일한것은 20여년전부터이다.

한생을 다 바쳐 가꾸어온 고향의 푸른 숲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때부터 박경남동무와 가족들이 나무를 심고 가꾼 면적은 수천정보를 헤아린다고 했다.

뼈속까지 얼구는 맵짠 바람이 불어왔다. 그속에서 박경남동무는 땀을 훔치고있었다.

계절을 모르는 로동의 성실한 땀, 헌신의 뜨거운 땀!

그 땀의 바탕을 론할수 있다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의무이고 량심이라 해야 할것이다.

성실한 산림감독원의 수고를 전하는듯 세찬 바람에 무성한 숲이 쏴쏴 설레이였다.

본사기자

긴 급 모 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합니다.》

구성탁공장 뒤산에는 수십정보의 나무림이 있는데 그중에는 파일나무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가을 우리가 구성탁공장을 찾았을 때 공장에서는 밤따기가 한창이였다.

5천그루나 되는 밤나무들에서 해마다 수많은 밤을 따들인다는 공장초급당일군의 이야기를 기쁘게 들으며 걸음을 옮기는데 손에 전정가위를 든 한 아바이가 초급당일군에게 바삐 다가왔다. 그 아바이는 우리에게 눈인사를 보내고는 초급당일군과 마주섰다.

《운수반의 한 동무가 방금 낫을 휘둘러…》

아바이의 목소리는 뒤산에서 들려오는 환성소리에 곧 묻히우고말았다. 심중한 안색을 짓고 그의 이야기를 듣던 초급당일군은 한마디로 잘라말하였다.

《사고심의를 합시다.》

우리는 저도모르게 긴장해졌다.

(낫, 사고심의?)

초급당일군은 우리의 속생각을 읽기나 한듯 방금 낫으로 밤나무가지를 자른 로동자를 놓고 사고심의를 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런 사고심의도 있는가고 하자 초급당일군은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던 1955년 6월 어느 한 철의 기지에 원예사직제가 새롭게 생겨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철소에 일군을 파견하시면서 복구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으며 그곳에 원예사를 두고 구내를 공원처럼 꾸릴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한의 강재가 귀하던 그 시기 철의 기지에 원예사를 둘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에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사랑이 깃들어있는것이였다. …

《공장의 한그루 나무에도 로동계급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당의 사랑이 뜨겁게 깃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공장뒤산의 나무들도 설비와 같은 고정재산으로 보고있습니다.》

초급당일군의 말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가 잘된 일터들을 보시면 만시름을 잊으신듯 환하게 웃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의 거리와 마을뿐아니라 공장, 기업소들에도 늘 공원처럼 맑고 신선한 공기가 차넘치도록 해주시기 위해 얼마나 큰 심혈을 바쳐가고계시는가.

하기에 이곳 로동계급은 생산전투를 벌리는 그 바쁜 속에서도 해마다 자체로 꾸린 양묘장에서 수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공장을 푸른 숲이 우거진 정든 일터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는것이였다.

밤나무 한가지를 자른 문제가 사고심의에까지 오르게 된것도 바로 그래서였다.

그러고보면 류다른 사고심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드는 매와 같은것이였다.

본사기자 리경일

수천길 땅속에서 빛나는 애국의 별

◎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덕탄광 채탄공이였던 공훈탄부 김철수동무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다운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속에 무엇이 있는가고 물으면 누구나 쉽게 대답할것이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의 원천, 대대손손 물려줄 귀중한 나라의 자원이 있다고.

하지만 수억수천년의 장구한 세월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중한것이 있음을 우리는 당당히 말할수 있다.

얼마전 우리가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덕탄광 2갱 채탄공이였던 공훈탄부 김철수동무의 소대원들을 만나기 위해 채탄장에 도착하니 탄차마다에 석탄을 가득 실어보낸 그들이 모여앉아 담배연기를 구수하게 들이키고있었다.

우리에게 담배를 권하며 어느 한 채탄공이 말했다.

《우린 여느 담배보다 이런 잎담배가 더 좋습니다. 한바탕 땀흘린 끝에 이렇게 담배를 말아피우면 참 별맛이거든요. 어서 피워보십시오. 이 담배가 바로 우리 소대장동지의 집에서…》

순간 그는 말끝을 흐렸다. 그와 동시에 막장안에 정적이 깃들었다.

때없이 밀려드는 추억의 물결이 그들의 가슴을 적셨던것이다.

너무나도 뜻밖에 자기들의 곁을 떠나간 소대장, 지금도 그가 곁에 있는것만 같아 동발을 세우다가도, 발파구멍에 장약을 하다가도 저도모르게 찾군하는 소대장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왔다.

탄부들의 추억은 김철수동무가 탄광에 제대배낭을 푼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8년세월을 더듬었다.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탄광으로 달려온 그에게 있어서 망우에 사는 날보다 땅속에서 일하는 날이 더 많았다.

탄차레루가 모자라면 두팔걷고 나서서 사장되여있던 레루들을 찾아내고 공구가 부족하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공구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기술혁신안들도 제일먼저 도입하고 소대원들의 기술기능급수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근기있게 내밀던 김철수동무의 인정미는 또 얼마나 뜨거웠던가.

몇해전 부모가 없이 할머니와 함께 사는 채탄공 리영남동무가 같은 중대의 운반공처녀와 사랑을 약속했다는것을 알았을때는 자신의 손으로 결혼상이며 첫날옷을 마련해주었고 합숙생활을 하는 소대원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자기 안해가 곁에서 간병을 해주도록 하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막장을 떠받든 동발처럼 묵묵히 조국을 받들어온 그였기에 해마다 소대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고 지난해 12월에는 공훈탄부의 영예를 받아안았던것이다.

추연한 눈길로 자기옆의 동발목을 쓰다듬던 젊은 채탄공이 이렇게 말했다.

《국가표창수여식에 참가하기 전에는 나에게 순간도 쉴 권리가 없다는 그의 말속에 한몸이 그대로 동발이 되고 탄차가 되여서라도 한줌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려는 열망이 보이라의 세찬 불길마냥 타번지고 있었다.

이렇게 연 사흘동안 막장에서 긴장한 전투를 벌리던 그는 새해를 하루 앞둔 날에야 동지들의 권고에 못이겨 집으로 들어왔다. 불과 몇시간 눈을 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다시 옷을 입더니 장화를 찾아신었다.

남편의 불같은 성미를 너무도 잘 아는 안해 최경희동무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큼직한 비닐봉투에 써레기담배를 꽁꽁 다져넣어주었다. 담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소대원들을 위해 남보다 몇배는 실히 될 담배봉투를 들고다니는 남편이였던것이다.

그 담배봉투를 가방안에 넣으며 김철수동무는 문득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다음해엔 터밭에 담배를 더 많이 심기요.》

《예?》

《우리 소대동무들이 하는 말이 마라초 한대가 석탄 한차라는거요.》

언제나 소대원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해주기 위해 마음쓰는 남편의 진정이 어려와 최경희동무는 웃으며 대답했다.

《심겠어요. 석탄만 더 낼수 있다면…》

김철수동무는 이렇게 안해와 헤여졌다.

결혼후 10여년세월 하루도 빠짐없이 일터로 나갈적마다 자신의 출근길이 한시라도 늦어지면 발전소의 보이라가 죽을것만 같아 다급히 대문밖으로 벌어지던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줄 최경희동무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1월 1일 0시전으로 지난해 석탄생산계획을 완수하고 발걸음도 가벼이 갱에서 나온 김철수동무와 소대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즉시 막장으로 들어가 새해 첫 전투에 돌입하였다.

새해 첫날 생산계획을 113%로 초과완수한데 이어 다음날에도 자기 교대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수행한 김철수동무와 소대원들이 다음교대를 위해 미리 발파구멍을 뚫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여서였다.

김철수동무와 함께 기름이 번질번질 도는 탄벽에 드릴을 대고 발파구멍을 뚫어나가던 남영복동무는 자기의 안전모로 탄가루가 부실부실 떨어져내리는것을 느꼈다. 탄부들의 표현을 따른다면 붕락을 예고하는 이슬이였다.

위험을 느낀 남영복동무가 천정을 올려다보는 순간 곁에 있던 김철수동무가 온몸의 힘을 다해 그를 와락 밀쳤다.

미처 소리칠 사이도 없이 뒤로 나가넘어지는 남영복동무의 귀전에 소대원들의 피눈지는듯한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소대장동지!》

한줌의 탄이라도 더 내자고 그리도 아글타글하던 탄부, 우리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조국이 더욱 부강해진다며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고 동발이 되여 수천길 땅속에서 조국을 받들어온 공훈탄부 김철수동무는 이렇게 동지들의 곁을 떠났다. …

탄부들과 나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채탄장을 떠나는 우리의 눈앞에 탄부들의 머리우에 빛나는 안전등의 불빛이 마치도 별빛처럼 안겨왔다.

바로 우리 조국의 땅속에 애국의 별무리를 이룬 저 별빛은 천이런가, 만이런가.

지심깊이 뻗어간 막장속에서 빛나는 저 별들이 있어 이 땅우에 문명의 불빛이 흐르고 행복의 창조물들이 일떠서고있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딛고선 이 땅을 결코 무심히 밟을수 없었다.

우리가 딛고선 땅속에 바로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는 귀중한 사람들, 수억만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참된 애국의 인간—탄부들이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승철진

탄부들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

2.8직동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성을 탄부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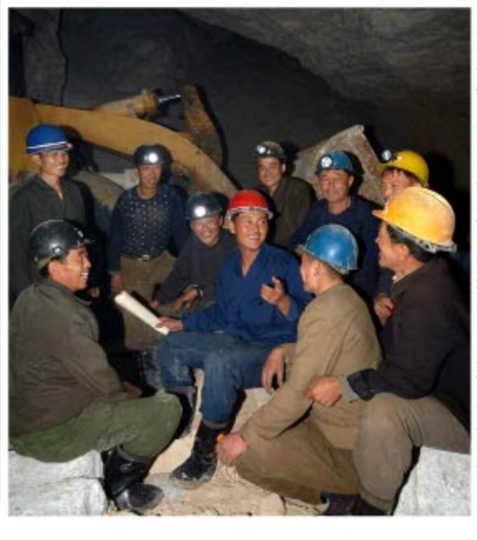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당조직들에서 당보에 실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위대성기사들에 대한 독보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갱막장들에 들어가 탄부들과 일도 함께 하고 쉴참에 당보에 실린 위대성기사들을 독보도 해주며 그들의 정신력을 적극 분출시키고있다.

얼마전 2갱 채탄3중대 막장에 내려간 초급당위원회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당보에 실린 사설을 독보하고 기사에 대한 해설사업을 진행한 끝에 모두다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석탄증산성과로 빛내이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 호소에 화답하여 중대의 탄부들은 맡겨진 채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독보와 해설사업은 탄부들의 심금을 팡팡 울려주고있으며 더 높은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청일


광산 무학분광산 전진갱에서 — 본사기자 찍음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 대흥청년영웅 더 높은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광부들을

21세기는 미국이 멸망하는 시대로 될것이다

최근년간 세계곳곳에서는 미국주도시대의 종말, 미국의 조락 등에 대해 주장하는 론조들이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의 통치배들과 대독점자본가들도 이 론조들을 감히 부정하지 못하고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미국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세계를 《지도》하게 될것이라고 희떱게 놀아대고있다.

미지배층과 대독점자본가들은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한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한사코 부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돌려세울수 없는것이 미국의 쇠퇴몰락이다.

오늘날 미국의 쇠퇴몰락은 단순히 세계를 제 구미에 맞게 휘고흔들던 패권의 종식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필연코 미국자체의 멸망으로 이어지고있다.

미국은 날로 심화되는 내부모순으로 하여 급속히 멸망해가고있다. 올해 1월에 들어서자마자 미국 오레곤주에서 개별적목장주들의 무장집단과 련방정부가 여러날동안 서로 팽팽하게 대치한 사건은 미국내부의 심한 병집이 곪아터질 지경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총들을 꼬나들고 옥신각신한 이 대립은 저들의 리익을 련방정부 소유지에로 확대하려는 목장주들과 그들의 침범을 막아보려는 련방정부사이의 리해관계의 충돌이였다.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보겠다고 경찰과 미련방수사국 등이 동원되였다고 한다.

주목되는것은 미국에서 이런 사태가 처음 일어난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방의 목장주들과 련방정부사이의 충돌은 빈번히 일어난다고 한다.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미국사회에서 내부분렬과 대결은 나날이 심화되고있다. 미국내부의 모순과 대결은 뿌리깊은 바탕을 가지고있다.

미국의 주민구성을 보면 인디안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여러 대륙과 나라들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이다. 따라서 미국에는 나라를 대표하고 주도할만 한 민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을 이루고있는 인종과 민족들은 오랜 기간 서로 반목질시하면서 충돌하고있다.

미련방수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증오때문에 발생한 범죄건수가운데서 80%이상이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증오감에 의한것이다.

미국의 계급과 계층도 매우 복잡하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극도로 심화되는 속에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구성도 층층으로 이루어지고있다. 결과 지배계급, 착취계급내부에서도 모순과 갈등이 격화되고있다.

미국에는 국민을 단합시킬만 한 구심점도, 똑똑한 사상적리념도 없다. 미국사회구성이 복잡한만큼 종교와 리념도 잡다하다. 공통된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자기자신의 리익을 중심에 놓고 그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끔찍한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이다.

오늘날 미국사회를 지배하는 황금만능주의와 인간증오사상, 인종주의도 바로 자기의 리익자체가 《진리》이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동이 《정의》로 된다는 퇴폐적이고 반동적인 가치관에 뿌리를 박고있다.

실용주의라는 개념으로 포장된 이런 썩어빠진 가치관이 미국의 여러 인종, 민족간에 심화되고있는 갈등과 증오심을 완화시키고 호상 단합시킬수 있는 방도로 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오히려 그 가치관은 미국의 내부분렬과 대결을 심화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얼마나 반동화되였는가 하는것은 3K단을 비롯한 깡패집단들외에도 민족동맹, 민족사회주의운동, 민족사회주의선봉대와 같이 신나치즘, 인종주의, 분립주의를 지향하는 극단주의단체들이 1 000개가 훨씬 넘는다는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이런 단체들은 자기들의 지지자들을 대폭 늘이고있으며 살인무기들의 매매에 극성을 부리고있다.

1995년 4월 미국 오클라호마주 소재지인 오클라호마시의 중심거리에 자리잡은 련방청사를 하늘로 날려보낸 폭탄테로행위를 비롯하여 미국내에서 련쇄테로사건들을 조작하고있는 반정부적인 《애국주의》단체들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오바마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때부터 3년이 되는 2011년에 《애국주의》단체들은 1 200여개에 달하였다.

이슬람교도들뿐아니라 금융업계를 장악하고 미국의 정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유태인들에 대한 증오심도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2010년에 유태인배척사건은 전국적으로 1 200여건이나 일어났다.

세계 어느곳을 둘러보아도 미국처럼 이렇게 사분오렬되여 필사적으로 호상 죽일내기를 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내부의 분렬과 갈등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패권적지위를 잃고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빠져들수록 더욱 심화되고있다.

인간대홍합탕의 나라로 불리우는 미국을 뱀치고있는 기둥들은 딸라와 핵무기이다. 지금 이 두 기둥들이 위태롭게 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통채로 뒤흔들리고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여 막대한 리득을 본 결과 세계최대의 채권국가로 될수 있었고 그 어느 렬강보다도 핵무기를 먼저 틀어쥠으로써 군사분야에서 최강국으로 등장할수 있었다. 그로 하여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유엔본부를 미국땅에 들여앉히고 유엔우에 군림한 《군주》노릇을 하게 되였으며 딸라지배의 국제금융통화제도를 수립하고 세계경제를 좌우지해오고있다. 세계곳곳에 촘촘히 들여앉힌 미군기지들에 전략핵무기들을 배비하고 핵위협공갈을 일삼으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 내정간섭을 끊임없이 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지난 70여년간 지구상에서는 100여차례의 크고작은 전쟁들이 있었다. 이 전쟁들의 과반수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개입한것들이다.

침략으로 생존하고 전쟁으로 비대해진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엄중하고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서도 항상 《평화와 정의의 수호자》로 자처하여왔다. 하지만 미국이 오랜 기간 누려온 특권과 번영에 이제는 어두운 그늘이 지고있다.

미국딸라지배의 국제금융통화제도가 붕괴되고있다.

여러 나라들이 미국이 지배하는 국제통화기금 등과 대등한 국제금융기구들을 내오고있다. 국제통화기금이 국제주요통화로 규정하고 가지고있는 준비자산이 여러 나라들의 화폐들로 다양해지면서 딸라의 패권적지위는 급속히 떨어지고있다. 몇해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적혼란을 겪거나 목격한 많은 나라들이 미국딸라지배의 국제금융통화제도가 매우 위험하다는것을 깨닫고 지역 및 민족화폐들을 무역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있다. 세계곳곳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세력중심들이 새롭게 형성되고있으며 그에 따라 세계경제구도도 변화되고있다. 신흥경제국들로 이루어진 브릭스 등이 세계경제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딸라의 패권적지위,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책동도 맥을 잃고있다. 미국의 대독점자본가들도 딸라보유의 위험성을 깨닫고 다른 나라 화폐들을 저축하고있는 판이다.

핵우세에 의거한 미국의 군사력도 심히 약화되고있다.

전쟁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탕진한 후과로 세계최대의 금융위기라는 재난을 겪은 미국은 할수없이 군사비를 축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이 쉬임없이 감행하는 침략과 략탈로 하여 세계는 혼란속에 빠져들고 그속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적인 종교조직들이 생겨나고있다.

미국은 이미 2001년의 9.11사건으로 그 쓴맛을 보았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나 패권적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을 21세기 미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본전장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있다. 방대한 무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돌리고있는 한편 군사비의 많은 부분을 첨단무기들을 개발하는데 쏟아붓고있다.

특히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공갈의 도수를 부단히 높여왔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서게끔 하였던것이다.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우리 나라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것이 확증되였다.

미국은 오랜 기간 다른 나라들과 술한 전쟁을 치르었지만 그 후과로 본토의 안보환경이 위협당한적은 한번도 없었다. 극단주의적인 테로조직들이 대폭 늘어나 활개치고 여러 나라들이 첨단타격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있는 오늘에 와서 미국은 본토안전을 완전히 담보할수 없게 되였다. 미국은 주민들에 대한 도청과 미싸일방위체계수립으로 안전을 지켜보려 하지만 그것이 믿을만 한것으로 되지 못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확고한 견해이다.

보다싶이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특권과 번영은 빠른 속도로 사멸되고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미국에 차례지던 많은 정치경제적리익도 줄어든다는것을 의미한다.

리익이 줄어들면 구심점이 없는 내부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사분오렬된 각이한 계급, 계층사이의 싸움은 보다 격렬해지게 된다.

미지배층은 광범한 근로대중에게 파중하게 들씌워 빨아낸 세금을 대독점자본가들에게 들이밀어 그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미국을 파멸의 운명에서 구원해보려 하고있다. 그런 시도가 바로 세계적인 반월가시위가 일어나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미국에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이 세금액수를 늘이는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여 끊임없이 시위를 벌리고있다.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은 미국에서는 국가예산과 의료보험제도, 이민개혁조치 등을 놓고 정치의 쌍두마차라고 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사이의 대결이 매우 치렬해지고있으며 련방정부의 지시에 주정부들이 반발하고 독자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행위들이 늘어나고있다.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국은 이제는 처지가 어려워진 정도를 벗어나 붕괴의 운명에 놓이게 되였다.

력사는 사분오렬된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을 건질 힘은 없다.

지금까지 붕괴의 운명은 언제나 다른 나라들의것이였다. 20세기 후반기에만도 여러 나라들이 붕괴되였다. 오늘에 와서 붕괴라는 운명의 보따리를 미국이 걸머지게 되였다.

세계는 21세기에 미국의 멸망을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리 경 수

민족의 미래를 담보하는 정의의 보검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적조치
여러 나라 단체 성명 발표

우리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브라질, 오스트리아단체가 12일과 1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정일령도자회고 브라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첫 수소탄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

력사에 특기할 수소탄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였으며 조선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민족의 기개를 떨치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단행한 수소탄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자기 운명은 오직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흉악한 핵전쟁기도를 분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는 진정한 평화애호국가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것이라는것을 확신한다.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병진로선관철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한다.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하는 나라
에짚르인사들 강조

에짚르인사들이 우리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에짚르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 와히드 알 욱쓰리는 14일 에짚트정당들의 련합모임에서 조선이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한것은 에짚트를 비롯한 아랍나라들의 모든 진보세력들에 있어서 경사로 된다고 하면서 조선의 수소탄시험은 미국의 침략위협에 맞설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마련한 정의의 조치이다,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하는 나라는 오직 조선뿐이다고 강조하였다.

에짚르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에짚르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야흐야 자카리야 헤이룰라는 12일 담화에서 조선의 수소탄시험성공은 강한 국력은 결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자원에 있는것이 아니라 령도자의 현명한 령도에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이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한 소식을 커다란 기쁨속에 접한 우리는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경탄을 표시한다.

이 소식에 불안과 공포에 질린 제국주의국가들은 조선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피태를 돋구며 떠들어대고있다.

우리는 조선이 취하는 평화애호적인 조치들과 립장에 다시한번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면서 조선인민이 모든 분야에서 보다 큰 진보를 이룩할것과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자기가 선택한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기를 바란다.

조선은 수소탄시험의 성공으로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령토에서 풀 한포기라도 다친다면 저들의 멸망만을 가져올것이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막지 못할것이다.

우리는 일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것은 공공연히 묵인하면서도 조선의 핵무기보유를 방해하는 미국의 전횡과 불공평한 처사를 다시금 규탄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침략과 전횡을 일삼고있는 미국의 책동을 짓부시며 세기를 주름잡아 나아가는 조선인민에게 경의를 표시한다.

조선의 립장을 존중해야 한다
프랑스신문 글 게재

프랑스신문 《몽드》 13일부가 우리의 수소탄시험 완전성공과 관련한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이 진행한 수소탄시험은 조선의 핵개발기술이 상당히 전진하였음을 증명하였다.

조선은 수십년간 계속되는 제재속에서도 핵을 보유하였다.

조선이 국제공동체를 《위협》한다고 비난하고있지만 조선의 핵계획을 막아보려던 미국과 동맹국들이 어떤 정책적실책을 범하였는가는 아직 보자기에 싸여있는 상태이다.

이 모든것의 배경에는 1950년대부터 계속되여온 이 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이 존재하고있다.

오스트랄리아의 한 력사학자는 자기의 글 《태평양의 화약고, 조선반도핵문제에서의 미국의 진퇴량난》에서 《조선은…핵공격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아온 유일한 작은 나라이다.》라고 서술하였다.

조선의 견지에서 볼 때 핵억제력은 나라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담보이다.

미국은 조만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였음을 인정해야 할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과의 대화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핵포기를 요구하는것은 비현실적이다.

미국은 앞으로 그 어떤 협상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전담보를 바라는 조선의 확고한 립장을 존중해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 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빈궁청산성과

볼리비아가 빈궁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나라에서는 지난해 빈궁률이 2005년의 38%로부터 17%로 줄어들었다 한다. 22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히면서 앞으로 빈부의 차이를 줄이고 사회적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원유증산 계획

이란이 앞으로 하루 원유생산량을 330만bbl수준으로 끌어올릴것을 계획하고있다. 이것은 현재 하루 생산량보다 20%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18일 이 나라 원유성이 밝혔다.

위성발사 계획

필리핀이 4월에 첫 위성을 발사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 나라 과학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설계제작하고 조립한 이 소형위성은 일기에보, 농업발전 등에 리용되게 된다. 앞으로 2017년에 두번째 소형위성을 발사할것이라고 한다. 18일 정부가 밝혔다.

일자리 조성

까메룬에서 지난해 일자리조성사업에 힘을 넣어 33만 7 76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5만 4 300여개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최근 이 나라 대통령이 밝혔다.

밀수행위 적발

싱가포르의 서남부지역에 있는 한 항구에서 20일 담배밀수행위가 적발되였다. 결과 화물자동차에 숨겨져있던 3만 1 000곽의 담배가 압수되고 밀수업자가 체포되였다고 한다.

마약 압수

레바논세관당국이 19일 바이루트에 있는 한 비행장에서 마약밀수행위를 적발하였다. 결과 과일지함들속에 감추어져있던 100kg의 코카인이 압수되고 2명의 관련범죄자들이 체포되였다.

세계를 휩쓰는 자연피해

큰 물

모잠비끄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큰물피해를 입었다.

몇달동안 계속 내린 무더기비로 인한 큰물로 까보 델가도주, 니아싸주, 남쁠라주에서 35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살림집과 학교 등이 무너졌다.

현재 이 지역에서 2만 3 000여명의 주민들이 식량지원을 요구하고있다고 한다.

정부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구제조치들을 취하고있다.

폭 설

벌가리아에서 최근 많은 눈이 내려 피해를 입고있다.

폭설로 45만명이상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으며 집들이 눈에 묻히고 자동차와 렬차운행이 중지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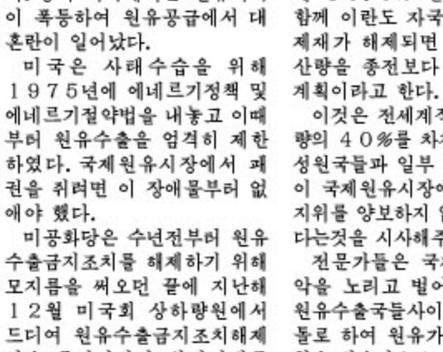
이 나라 남부의 스몰랸과 꾸르드잘리, 하스꼬보주들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였다 한다.

가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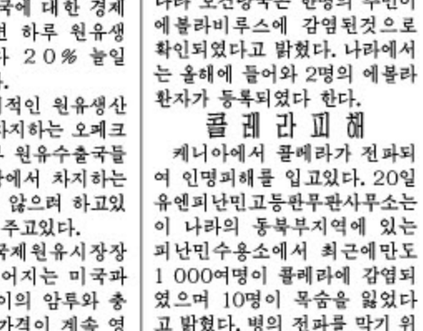
레소토에서 최근 가물피해를 입고있다.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가물이 지속되여 인구의 3분의 1이 식량부족을 겪고있다. 피해가 확대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조치를 취하고있다 한다.

18일 유엔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영국에서 큰 물 피해



인디아에서 지진피해

마르쎌루 레벨루 데 쏘우자
뽀르뚜갈대통령으로 선거

뽀르뚜갈에서 마르쎌루 레벨루 데 쏘우자가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그는 24일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미국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 테로위협

미국의 델라웨어주, 아이오와주, 메릴랜드주, 마싸츄세쯔주, 펜실바니아주, 뉴저지주에서 19일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테로위협이 동시에 발생하여 일대 혼란이 조성되였다.

이날 6개 주들에서 학교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총과 폭탄으로 테로할것이라고 위협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이 인터네트에 실리고 전화들이 걸려와 많은 학교들이 폐쇄되고 긴급대피소동이 벌어졌다.

이 나라의 UPI통신은 최근 학교들에 대한 테로위협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고 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원유가격의 하락과 그 전망

국제시장에서 원유가격이 계속 떨어지고있다. 현재 원유가격은 1bbl당 30US$미만이다.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개시한 후 국제원유가격은 1bbl당 40US$였다. 그러던것이 2008년에 들어와서는 1bbl당 100US$계선을 돌파하였으며 지난해 1월에는 또다시 50US$미만에 이르렀다. 그때로부터 원유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10월에는 1bbl당 40US$계선, 12월에는 35US$정도였다.

원유가격이 오르내리는것은 보편적인 일이지만 이런 최저수준으로 내려가기는 10여년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에네르기수출에 크게 의존하고있는 일부 나라들이 경제적손실을 보고있다. 얼마전 베네수엘라에서 긴급경제사태가 선포되였다.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이 나라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은것이다. 세계최고의 원유매장량을 자랑하면서 외화수입의 96%를 원유수출에 의거하고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외화준비고가 줄어드는 등 경제적손실을 보고있다. 베네수엘라정부는 침체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있다. 로씨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어느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최대의 위협들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위협이라고 하면서 그중에서도 원유가격 폭락으로 초래되는 손해가 최악의 위협이라고 말하였다.

로씨야재정상은 현 원유가격에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예산적자가 2배이상 늘어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원유수출국들에서 원유가격하락으로 인한 후과는 매우 크다.

물론 최근시기에 원유가격의 파동이 심하게 나타난데는 세계경제장성속도가 굼떠져 국제시장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낮아진데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그 주되는 원인을 국제원유시장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책동에서 찾고있다.

원래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며 생존하여왔다. 자국에 원유매장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생산되는 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인 원유생산국으로 되고있다. 혈암유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고있는것이다. 원가가 비싸지만 그래도 시장장악을 위해서는 생산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미국의 탐욕이다.

영국의 한 대규모원유회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미국은 혈암유생산을 증대시켜 2013년에 원유생산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던 사우디 아라비아와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던 로씨야를 누르고 세계최대의 원유생산국으로 되였다.

원유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에는 보다 넓은 시장이 필요되였으며 국제원유시장에서 영향력있는 오페크를 밀어낼 야심을 품게 되였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원유수출이 법적으로 금지되여있었다. 1970년대초에 미국에서 있은 원유위기가 발단으로 되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원유가격이 폭등하여 원유공급에서 대혼란이 일어났다.

미국은 사태수습을 위해 1975년에 에네르기정책 및 에네르기절약법을 내놓고 이때부터 원유수출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국제원유시장에서 패권을 쥐려면 이 장애물부터 없애야 했다.

미공화당은 수년전부터 원유수출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모지름을 써오던 끝에 지난해 12월 미국회 상하량원에서 드디여 원유수출금지조치해제안을 통과시켰다. 법적장애물을 제거한 미국의 혈암유생산업자들은 원유생산량을 최대한 늘이는 방법으로 국제원유가격을 떨구어 저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국제원유시장에서 패권을 쥐려고 하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곧 일부 오페크성원국들을 비롯한 원유생산국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이 나라들은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저저마다 생산량을 늘여 가격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구매자들을 저들에게 끌어당기고있다.

로씨야의 원유업체들도 원유가격이 전례없이 떨어진 환경속에서 생산량을 늘이고 수출을 확대하고있다. 지난해 이 나라의 원유수출량은 종전에 비해 10.6% 늘어났다. 이와 함께 이란도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하루 원유생산량을 종전보다 20% 늘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원유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오페크성원국들과 일부 원유수출국들이 국제원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양보하지 않으려 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원유시장장악을 노리고 벌어지는 미국과 원유수출국들사이의 암투와 충돌로 하여 원유가격이 계속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고있다.

본사기자 김 수 진

전염병피해
조류독감 발생

나이제리아의 아다마와주에서 최근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20일 이 나라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주적으로 2만 4 000여마리의 닭과 칠면조 등을 도살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최근 조류독감이 또 발생하였다. 20일 인디아나주당국은 인디아나폴리스시에 있는 10개의 가금목장들에서 H7N8형조류독감비루스에 감염된 칠면조와 닭들이 발견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칠면조와 닭들을 도살하는 소동이 벌어지고있다 한다.

에볼라환자 발생

시에라레온에서 최근 에볼라환자가 발생하고있다. 21일 이 나라 보건당국은 한명의 주민이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나라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2명의 에볼라환자가 등록되였다 한다.

콜레라교해

케냐아에서 콜레라가 전파되여 인명피해를 입고있다. 20일 유엔피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는 이 나라의 동북부지역에 있는 피난민수용소에서 최근에만도 1 000여명이 콜레라에 감염되였으며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여

항의집회

일본 도쿄에서 6일 파거성노예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할것을 당국에 촉구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이날 수상관저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많은 사회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현 당국이 성노예범죄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땅히 그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의시위

마쟈르의 부다페슈뜨에서 18일 미국택시회사의 비법적인 운영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많은 택시운전사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미국택시회사의 비법적인 운영을 눈감아주고있는 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자기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고 항의하였다.

파 업

그리스의 여러 지역에서 당국의 그릇된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파업이 벌어졌다.

20일까지 2일동안 계속된 파업에는 수많은 농민들과 어부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뜨락또르로 도로들을 봉쇄하고 년금개혁조치로 자기들의 생활처지가 더욱 악화되고있는 정책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에는 3만 7 000명의 의사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그릇된 보건정책으로 자기들의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된데 대해 항의하면서 로동조건을 개선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파업으로 많은 병원들에서 혼란이 조성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총기류범죄방지를 요구하며 집회

ㄱ-61014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